朝鮮日報
夕刊 四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林內閣根本政綱 八日、中外에宣明

前內閣의政策大綱을踏襲! 聲明內容은抽象的

【東京電話同盟】林首相은 速히新內閣의 政綱政策을 中外에宣明하고 施政의 大綱을 明白히하야 人心의不安一掃를 期하기로 決定하고 三日 臨時閣議에서 政綱政策發表의 方針을決定하엿슴으로 卽時 各閣僚로부터 各省政策意見을 蒐集한後 이에基하야 大橋書記官長、川越法制局長官兩人의 手中에서 原案을作成하야 늣더라도 八日 臨時閣議에서 正式으로決定하고 卽日上奏하는 同時에 中外에發表하기로되엿다 그리고 林內閣은 當面의時局對策으로서 廣田前內閣이 남긴 諸懸案의 大綱을踏襲할方針임으로 右政策聲明에잇서서도 抽象的으로 具體的政策內容에 言及치안코 國體明徵의 徹底、外交方針의確立、國防充實及産業의 振興、憲法政治의遂行等의 主要眼目에 對하야 新內閣의 根本的政綱政策의 宣明에努力할 豫定인데 그要旨는 左와如한것이라한다

一、國體의明徵 現下內外의 時局은 極히多端하야 이難局에處할 方途는 한결가티 擧國一致의 實을 올리는데잇슴으로 鞏固한國體觀念을 明徵하고 國民精神의 徹底를圖함은 政府의本務이오 施政의根本이다

一、外交方針의確立 日滿兩國 不可分關係를 基調로하고 東亞의 安定勢力인 實을擧하며 따라서 世界平和確立에 寄與함은 日本의一貫한 外交方針임으로 政府는 이根本方針을 堅持하고 聯盟各國과 厚誼를두터히하고 特히 隣接諸國과의 親善關係의 確保를期한다

一、國防充實및産業振興 政府는 現下國際情勢에 鑑하야 自主的國防充實에 努力하는同時에 國力의 基本을 培養할 急務이라하고 産業振興貿易伸張에 全力을 다하야서 國力伸展에 資하기를 期한다

一、憲法政治의遂行 近時 日本國憲 國法의 意義를 輕視하고 國體觀念과 相容되지안는 言論이 流行하고 잇슴은 政府가 가장遺憾으로 생각하는바다 政府는 憲法의 精神 및條章에 恪循하야 政治를行하며 日本固有의 憲法政治의發展에 全力을 다하야 如斯한 言論의一掃를 期한다

一、時局對策의樹立 政府는 如斯한 根本方針에則하야 速히時勢에 適應하는 應急諸政策을 樹立하고 時局打開 時艱克服에 邁進하고저한다 그러나 急激한手段을 避하고 漸進的改革으로서 가장時勢에適應하는 庶政一新의實을擧할方針이다

明年度豫算案은 現在그대로再提出

修正할時日이업다고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前內閣이 議會에提出한 明年度豫算案을 一旦撤回하고 再檢討를加한後 議會에再提出하기로 決定하엿섯스나 結城藏相은 四日閣僚와 隔意업는意見을 交換한結果 前內閣이編成한 明年度豫算案에對하야는 現內閣獨自의立場에서 相當히修正을加하여야할 것으로생각하나 停會期間關係로 短時日間에 右修正點을 文書로表明한다함은 印刷其他의 關係로 困難하므로 停會가끗나면 劈頭에首相及藏相施政方針演說中에現內閣의 方針을明示하고 他日豫算의 實施에잇서서 이方針을 實現할旨를 說明하엿다 그리고 豫算案은 現在 그대로 再提出할 方針을 大體로內定하엿다

議會停會詔書公布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對議會準備로 四日의臨時閣議에서 四日부터 十日까지 七日間議會의 停會를 奏請하기로決定하고 卽時上奏御裁可를 仰하야 左와如히四日官報號外로서 議會停會의 詔書가公布되엿다

詔書

朕帝國憲法第七條에依하야 二月四日부터 十日까지七日間 帝國議會의 停會를 命함

御名御璽

昭和十二年二月四日 國務大臣副署

臨時閣議

【東京電話同盟】四日 臨時閣議는 午前十時五分부터 首相官邸에서 開會、林首相以下 全閣僚가出席하야大橋書記官長으로부터 三日 貴衆兩院 書記官長으로부터의 回答顚末과衆議院에 잇서서는 自發的으로 休會하여달라는 政府의要求가 容認되지못하엿다는旨를報告하고 卽時 그對策協議에들어가 閣僚間에 意見交換을行한結果 四日부터 十日까지 七日間停會를 奏請하기로하고 同十一時二十分 停會詔書를 各各 傳達하고 議會對策、物價對策、政務官問題、豫算問題、政綱問題等에 對하야 雜談的으로 意見交換을 行한後 午後零時十分 散會하엿다

大藏省異動 正式決定

【東京電話同盟】大藏次官의 更迭에伴한 大藏省局長들의 異動은 四日 左와如히 決定하엿다

內閣調査局調査官 正五位勳四等 石渡莊太郎
任大藏省主稅局長(二等)
預金部長 從四位勳三等 關原忠三
任大藏省理財局長(一等)
造幣局長 從四位勳三等 入間野武雄
任預金部長(一等)
大藏省主稅局長 兼內閣調査局調査官 正五位勳四等 山田龍雄
任造幣局長(二等)
關稅關長 從四位勳四等 太田嘉太郎
任熊本稅務監督局長(二等)
熊本稅務監督局長 柳澤直衞
依願免本官

停會奏請理由 大橋翰長發表

【東京電話同盟】大橋書記官長은 四日午後零時半停會奏請의理由를 左와如히發表하엿다

議會開會中 不時에 內閣更迭이 되엿섯다 新內閣은 이미 提出되여잇는 豫算案및 各種法律案을 昨日 大體로 撤回하고 再檢討를 加한後 다시 提出하기로하엿다 前內閣이 오랜동안 硏究한案임으로 이를數日中에 再提出함은 諸般準備를 整頓하는點으로도 困難하다 그러나 衆議院은 今日會議를 열기로하엿슴으로 今日부터 十日까지 七日間 不得已停會하게된것이다

對中央妥協反對코 將領全部監禁!

此擧에反對한王以哲은慘殺

張學良氏參謀 孫銘九兵變眞相

【上海四日發同盟】中央派와 妥協에反對하고 某日 西安城內에 兵變을 이르킨 張學良參謀孫銘九의 特務部隊는 王以哲、何柱國、于學忠、楊虎城等西安各將領에 對하야

一、南京政府反對

二、卽時中央軍에向하야 進擊을開始할것

三、絶對로現地를 撤退치안코 또如何한 妥協條件도 受諾치아니할것

이란 三個條의主張을 提示하고 그贊成承認을 어덧다 그리고 그때 이를拒否한 第六十七軍長王以哲은 慘殺되고 其他各將領도 目下 그에게 監禁되어잇다고한다

政務次官制度存置意見有力

政黨과의摩擦을避하기爲해 林首相의裁斷注目

【東京電話同盟】黨籍離脫을 條件으로 政民兩黨으로부터 閣僚抽出에 失敗한 政府는 政務官問題를어떠케 取扱할가 이問題는 林內閣의 對政黨關係를 卜할가장 重要한 열쇠가된다고注目되고잇는데 閣內에는 對議會策으로 政黨과의 不必要한 摩擦을 避하는見地로부터 政務官制度存置의 有力한 意見이이러나게되엿다 三日閣議席上同問題에對하야 意見交換이 行한때 河原田內相 山崎農相 伍堂商相等으로부터 黨出身大臣을가지지못한 現內閣으로서는議會를압두고政黨과의 連絡을 圓滿히하며 또 特히 政黨을 排斥하는不必要한 摩擦을 避하기 爲하야 萬若 政黨側이 政府의 意向을 諒解하고 圓滿히 政府에 協力하는 意味에서 政務官을 보낸다하면 政務官을 두는것도 關係치아타。는意見이잇섯다 이에對하야 軍部兩大臣은 아무것도 發言치안헛스므로 政府의方針도 決定하지못하야 相當한曲折이잇슬것이라고推測된다 今後政黨側의意向을打診한結果에依하야 如何한形式에잇서서 政務官을두기로될지 도모른다 如何간지 議會休會中에政府로서의態度를 決定할터임으로 林首相의裁斷은 注目되여잇다

衆議院各派交涉會

【東京電話同盟】衆議院各派交涉會는四日午前十時三十分부터 院內議長室에서 開會、富田議長으로부터 停會詔書가傳達되는旨를告하고 來十一日은 紀元節이므로 例年대로 院에서祝賀式을 擧行할旨를決定하고 散會하엿다

南總督巡視 中旬에忠淸、全羅

西鮮初回巡視를마친 南總督은 다시붓을 南鮮方面에 돌리여十五、六日頃京城發 八日間豫定으로 忠南北、全南北初回巡視途上에 오르기로되엿다

議會對策이서르러 不測의結果招致?

政府의對政黨休會交涉失敗

政民、各派一齊反對

【東京電話同盟】議會休會問題를 協議한 三日衆議院各派交涉會는 民政、政友兩黨은勿論 各派의交涉委員이 모도政府의 休會希望에反對하야 富田議長의 斡旋도 奏效함이업서 自發的으로 議會가 休會를行함은 不可能하게되엿다한다 議會休會는 議會스스로 審議權을 放棄하는것이라見地로부터 政府에反對를 通告하엿는데 議會의休會는 議會스스로 考慮할問題이다 따라서 政府가 鄭重히 自己의形便을 理由로 議會의權能을 無視함과가튼것을 말하야 議會의憤激을사는 一事에 微하더라도 現內閣이 議會對策에 일직失敗하엿기때문인데 今後 此種事態가 頻發할것이라 豫想되며 或은 不測의結果를 招來할지도 모름으로今回事件을 鑑하야 政府의 反省을 要望하고잇다

(寫眞은 富田衆議院議長)

議會休會問題로 벌서政黨不滿表示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對議會策에對하야 三日閣議에서 協議한結果 廣田內閣이 第七十議會에提出한 豫算案및法律案五十一件을全部撤回하고 檢討를 加하야 修正할點이잇다면 修正하야必要한것만을 提案하기로 方針을決定하고 同時에 貴衆兩院에 對하야 政府의 準備의 便宜上來十日까지 自發的으로 休會하여달라고 要請하기로하고 大橋書記官長으로부터 同日午後長、田口兩院書記官長에 此旨를 通告한바 衆議院各派交涉會에잇서서는議會本意에 鑑하야 自發的으로休會할必要는업다고하고 政府의希望을들을수업다는 旨를回答하엿슴으로 政府는 不得已四日臨時閣議에서 議會停會를 奏請하기로된것이다 이러나 新內閣이 成立되는 境遇에는 準備할期間을 議會가自發的으로 休會하는것을 例로하는데 今回衆議院各派가 이前例에 조치안코政府의 申請을 一蹴한것은 林新內閣에對한 政黨의 不滿을 表示한것인데 議會에잇서 政黨의對政府態度를 示唆하는것으로 그進行이 重視되고잇다

遞相問題에對한 遞信當局의要望

【東京電話同盟】專任遞相任命은 議會再開까지에 行하게될지 또는 그後에 持越될지 아직豫測이 서지못함으로 電力國策、海運國策等 幾多重要法案을 擁하고잇는 遞信當局으로서는 議會再開를旬日後에두고 그前途에對하야 重大한不安感에 擁襲되여잇다 卽 山崎遞相은 十日 그就任人事에當하야 兼任期間은 全責任을가지고 그衝에當할旨를 言明하고 各法律案、豫算案에對하야四日各局長의 說明을 聽取하고 對議會準備를 進行하고 잇슴으로 大體兼任遞相에 信賴하고 잇스나 專任問題로서는

一、山崎農相이 兼任한대로 議會에臨한다하면 法律案 豫算案이 山積한農林 遞信兩省을 一人의大臣이 擔當하게 될뿐아니라 政務官도 任命되지아니하엿스므로 電力國家管理案과가튼 重要法案審議에 對하야 充分한 說明을하야 諸事促進을期하기 事實困難하다한다

二、따라서 專任遞相의 任命은 一兩日中에 行하여야할것이오 議會再開直前 乃至再開後에行한다하면 如何히 練達한士라하더라도 相當한準備를 必要로할 것은勿論임으로 議會再開劈頭에 提出하야 充分한審議期間을 期待하는것은 困難하다 따라서 遞信當局으로서는 政府가 一日이라도速히 專任遞相을 任命하거나 또는 山崎農相이兼任하더라도 議會에臨할가 如何한지 그根本方針을 明定하고 그銓衡을 明白히하야 事務當局의 不安을一掃하도록 切望하야마지안는다

伊土兩外相會談

兩國間諸懸案解決

【로마 三日發同盟】土耳其外相 아라스氏는 羅馬駐箚大使라시브氏를同伴하고三日午前十時半밀라노政廳에서伊太利外相챠노伯과會見하고 前後二時間에亘하야 協議하고 다시午後五時부터 四十五分間에 亘하야 愼重히協議한結果 伊土兩國政府는 一九二八年五月의『中立協定及 司法的解決에關한條約』에基하야 今後友交關係를促進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엿다 會見한結果 兩國에 新條約이締結되기까지에는 이르지안헛스나 左의諸懸案은이에一括解決되엿다고傳한다

一、土耳其政府는 아디스아베바駐箚公使館을 撤收하고 伊太利政府의 에디오피아帝國倂合을事實上承認할

一、伊太利政府는 몬트르海峽條約에參加하고 土耳其政府의海峽地帶再武裝을 承認할

一、伊太利政府는 도데카네스諸島中 레로스島에 尨大한築造中인 海軍根據地를 構築하엿는데 以上의軍事施設은 伊太利東阿植民地에 이르는通路를確保하는以外 他意가업다 世界大戰의末期 伊太利政府는土耳其領아나토리아地方 占據를企圖하엿는데 에디오피아帝國의倂合에依하야 植民地에 關한要求도大體로 滿足되엿슴으로 아나토리아地方에對한要求를放棄할

右會見後兩外相은 相携하야 밀라노市長招待의 歡迎레셉손에 列席하엿다

콤뮤니케發表

【밀라노三日發同盟】伊土兩國外相이 會談한後 三日夜 左의콤뮤니케를 發表하엿다

伊太利外相챠노伯및 土耳其外相라스博士는 三日前後二回二時間四十五分에 亘하야 會談을遂하고 兩國相互間에 利害關係가잇는 諸懸案에對하야 一九二八年五月 友交條約에基하야 檢討를加하고 特히 다-다넬스海峽에關한 몬트르-條約 及東地中海에잇서서의 兩國政府의 活動및政策에對하야 協議하엿는데 友交的으로意見을交換한結果伊土兩國政府間에는兩國에關係잇는 一切懸案에對하야合意하얏스며 또 雙方이 모도相互協調精神에 基하야 活動하고잇는 事實이 確認되엿다 平和와安寧을維持함은共通的利益인故로 伊土兩國은全般的政策에對하야도 同樣態度를取할것이다 또兩國外相은今後通常外交機關을通하야 兩國間의親善關係를 促進하는同時에今回協定에서 言及된 特定諸點은 將來에잇서서도 協力할基礎가되는것이라는데 意見이 一致되엿다

英獨海軍代表 再次折衝開始

【倫敦三日發同盟】英獨海軍代表는 三日會合 一時中絶의二國間海軍協定案에對하야 再次 折衝을開始하엿는데 交涉目的은 英米佛三國海軍條約에따라 艦型、砲徑等制限條項을 協定할것이라한다 그런데英獨海軍協定에잇서蘇聯政府가 極東水面의除外合을 留保하고잇는 事實에對하야 獨逸政府는 强硬히反對的態度를 堅持하야 交涉이 一難關에 逢着하엿다

옴 피풍 히벡고 靑山膏

人事·集會

◆荻原三郎氏(鐵道局庶務課長)憲山、白茂兩線 從事員慰問次로 出張中이든바 四日午前八時歸任

◆山田忠次氏(遞信局長)四日午後四時十五分京城驛發渡東

本社參觀

◆東洋自轉車講習所長 李龍載氏引率下講習生三十名 本社見學

八面錄

◇京城府內 普通學校兒童의入學節次가 엇더케까다라운지 모야말로 科擧하기보다어렵다

◇(一)請願書는 町會에서어더가지고 (二)戶籍係에對照해가지고 (三)府學務課에提出한다

◇(四)學務課에서는 다시稅務課에넘기어 保護者의 納稅有無와 그程度를 알아보아가지고

◇(五)住所와學校의 距離를보아 入學할學校를 配定하게되는 順序라고。

◇이러케 配定을 바든兒童은 (六)다시 考査라고하는 試驗의關門을 通過해야만 入學이 된다。

◇以上六個의難關中에도 父兄의 稅額有無와 程度卽財産有無가 第一큰關係를가진모양。

◇義務敎育實施를待望하는이때에 貧困을理由로 就學의길이막힌다하면 社會問題가아닐가?

京城府三淸町 三花園住宅地讓渡圖

京城府三淸町三五의五
鄭熙燦

總坪數 九千一百七十坪
其內 販賣分地 三千七百七十坪

現在地 五千四百坪

右現在地五千四百坪中 五百四十坪은道路敷地로無償提供하고 其餘坪을三十五圓式計算하야讓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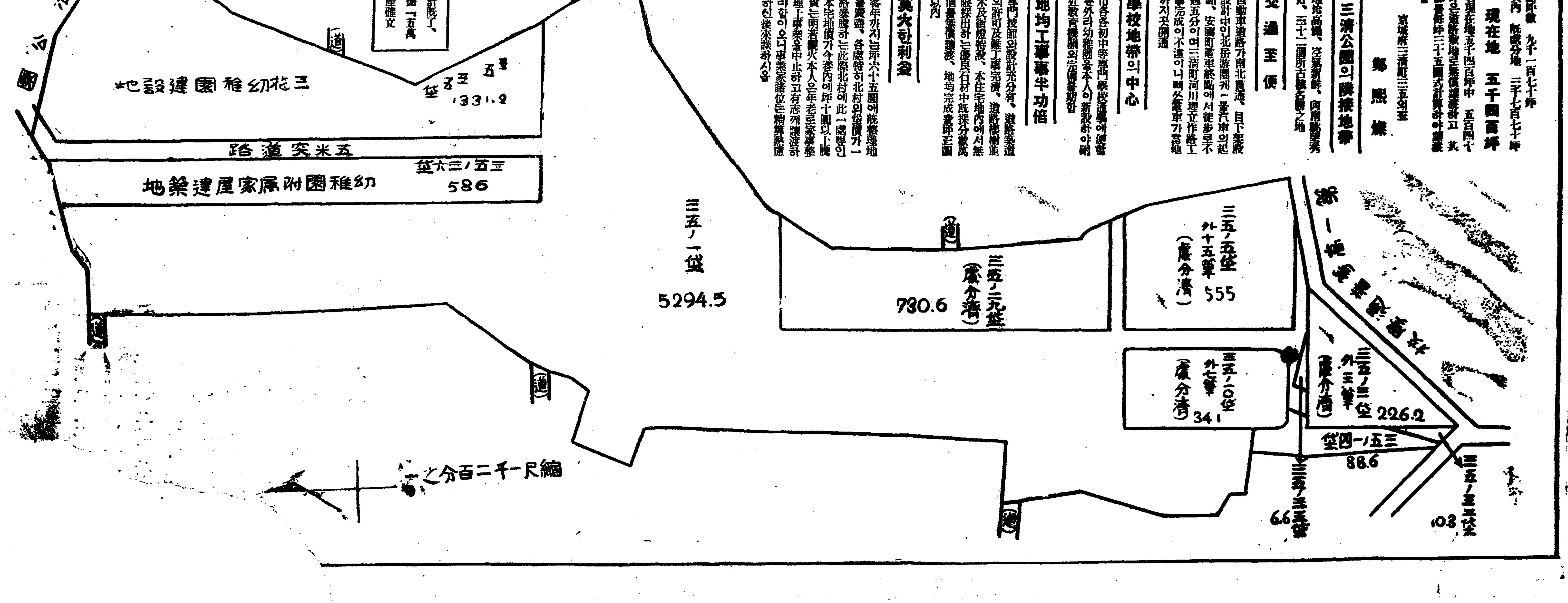
三淸公園의隣接地帶
地位高爽、空氣新鮮、南向眺望秀好、三十二個所古蹟名勝之地

交通至便
自動車道路가南北貫通、目下架設設計中인北岳遊園케-블汽車의起點、安國町電車終點에서徒步로不過五分이며三淸町河川埋立作路工事完成이不遠이니乘合自動車가當地까지곳開通

學校地帶의中心
市各各初中等專門學校通學에便利할뿐外라幼稚園을本人이新設하야附近敎育機關의完備를期함

地均工事事半功倍
專門技師의設計充分有、道路築造의許可及施工事完濟、道路植樹並木及街燈施設、本住宅地內에서無限採出하는優良石材中旣採分數萬個를無償讓渡、地均完成費坪五圓以內

莫大한利益金
客年까지는坪六十五圓에旣整理地를買賣、各處特히北村에比하야低價가一路暴騰하는此際北村의地價가一層騰貴는明若觀火、本人은年老로家事整理上事業을中止하고有志께讓渡하라함이오니事業家諸位는精算熟慮하신後來談하시옵



實生活에 符合토록 改正立法에 腐心

半世紀나묵은것은時代相과背馳됨으로 느저도明年에는新法實施

時代에뒤진法令 競賣法과強制執行法

약진하는조선의리면에는 생활의 곤난으로파산의비경에빠지는사람이속출하고 이들의배후에는은행, 회사또는개인의고리대금업자들의마수가뻐더미치고잇슴에따려 흔히강제집행 흑은경매등의 듯기만하야도 소름끼치는사건이 점점느러가는데 현재시행되는경매법(競賣法)이나 강제집행법(強制執行法)은 명치이십삼년즉지금으로부터 사십팔년전옛날에 발포된후 한번도개정하지아니한것을 조선에그대로갓다 시행하는것임으로 법령그것에 여러가지결함이만허서 시대에맛지안는것인데다가 이것을사용하는재판소관리또는집달리들의 위법행동이 도한적지아니함으로 총독부법무국에서는 현하시대상에비추어 시급히경매법과 강제집행법을 개정하고자 방금립안하야 연구중이다 초안이끗나는대로정식수속을밟어 시행하도록할터인데이것은 일본내지의개정안 의관계도 잇거니와 일반민중의 실생활에 즉접중대한관계가 잇는것임으로 그신중연구에는 상당한시일을요할모양인데 느저도 래년에는실현될모양이다

農地令實施後三年 契約更新期迫到

京畿道서도小作圓滑에備하야 各郡에小作官을派遣

지난 소화구년시월부터 실시된 농지령(農地令)과 소작령(小作令)에의한 소작게약은만삼년간으로되여잇서 금번 시월로써그게약기간이 만료되기때문에경기도에서는 오는 십륙일부터 열흘동안 도내 고양군(高陽郡)외십삼군에 각각 소작관과소작관보(小作官補)를 파견하야 사음농사(舍音農事)간담회를 개최하야 지주와소작인사이에 새로갱신되는 소작게약에대하야 농지령을토대로 원활하게되도록 조종할터이라고한다

免許狀詐欺 자동차운전수

가면허장내준다고 감언리설로기인취재하다가 류치장신세를 진자가잇다 그는부내대도정(大島町)일백이십팔번지 안금순(安今順)방에 하숙하고잇는 간조(間組)자동차 운전수 김병룡(金丙龍)(二〇)으로 지난해팔월에대도정에사는 리인옥(李仁玉)(二〇)을자기집에 불러다가 경부클친히아는니 자동차운전만 배우면 면허장은 문제업시 낼수잇스니 하면서 리를 꾀이며 돈 이십원만내면 면허장을 엇게해 주고 취직도 잘되게 해 주마는 바람에 리인옥은 자기 집에잇는 군수편 기게(軍手編機械)한대 시가 일백오십원짜리를 전당에 너코 십칠원을 어더가지고 김에게 주엇다. 김은 돈을 밧고는 어대론인지 도망을하여 버렷는데 지난 상일에 룡산경찰서에 체포되여 여죄를 또추궁하는중이라한다

布木詐欺

수일전부터 종로서에서는 시내례지정(禮智町)일백이십오번지 유한수(劉漢秀)의큰아들 은상(殷相)(二五)을 사기혐의로 취조중인바 그는 자기아버지가 서린정(瑞麟町)경성포목상중개조합(京城布木商仲介組合)의조합원임을기화로하야 시내종로일대의각 포목도매상에서 약삼만륙천원의 물건을 위탁매매의형식으로 가저다가 강제거파려서 유흥에소비한사실을 자백하엿다고한다

氷雪막힌鴨江岸에 馬賊과三時間激戰

三日午後慈城對岸에七十餘名이來襲 雙方에負傷者多數

눈과 어름으로 새경선이 완전히 갓추어진 압록강(鴨綠江)안에는 마적이 떼를지어 불시출몰하는중 삼일오후에는 평북자성(慈城)대안 즙안현 석회구(輯安縣石灰溝)오지에 만주국인들로 조직된 약칠십명의 유력한 마적이나타나 조선측을 엿보고잇는것을 자성경찰서 관하경비대이십여명이 토벌차로 출동하야 약세시간반 격전하야경비대측에 사망일명 중상세명의손해가 잇섯고 마적측에는 십일명의 사망자와 십수명의 부상자를 내이엿다 국경마적토벌의 교전으로는 근래드물게보는 큰사건으로 경무당국에서는 극히 긴장하여 선후책을 강구중인데 경무국에 도달한 평북경찰부의 자세한 보고를보면 다음과갓다

討伐警備隊는 一名死亡三名重傷

이싸움에경비대의 손해는 사망자한명중상자세명이잇는데 그씨명은 다음과갓다

一、死亡者 倉沼出張所巡査竹迫實 頸部貫銃創

一、負傷 第一分隊長 三奧警部補 池田好雄巡査部長 右臀部貫銃創 警備副隊長兼川繁巡查部長 ▲頭部貫銃創 ▲三奧警部補 明射太男巡查部長 大腿部貫銃創

인데 모다중상이나 생명에는별관계업스리라하며 곳강계(江界)도립의원에 수용하엿스며 또 마적측의 손해는 시체십일개를 유기하엿는바 세개는 산채와가티 태워버리엇고 기타부상자는 십수명이되는모양이다

日暮토록頑强對抗 밤타서山中逃避 正規兵가튼有力馬賊

지난달삼십일 자성대안에나타나 자성경비대와교전하고 도주한마적 해산(海山)의일대가 그날다시 자성경찰서원동경비출장소(遼洞出張所)대안 즙안현석회구오지(강안에서약십륙정)에다시나타나 원동출장소를 엿보고잇다는 정보를접한 경비대에서는 삼일 오후세시경 시뢰경부보(市瀨警部補)를 대장으로 이십삼명의 특별경비대를조직하여가지고 경기관총일대를 가지고 원동출장소를 출발하야 마적이근거를둔 석회구오지로향하엿다 이어 발자최가명료함으로 경비대는 그뒤를추격중동세시반경강안에서약이리되는로호산(老虎山)에서 마적의 보초네명이 나타난것을발견하고 약오십미돌의거리에서두명을사살하고 다시전진하자 산우의 산채(山寨)에서약삼십명이돌연나타나 주위의참호(塹壕)에의거하여 맹렬히발포함으로경비대도 이에응전케되엿섯는데마적측은 각각으로 수가늘며 여기저기 산중턱요소의 참호에서 다수가나타나 싸움은 일층맹렬하여저 경비대는 마적대와 오십미돌내지일백오십미돌의 지점에서 극히위험한가운데 약세시간반이나 격전을하는동안에 날이 어두웟다 이마적의 일대는 총수가 약칠십명으로 거이정규병과가튼 장비를한것이엇는데 마적대장은 진두에 나타나 지휘하는등 그들의 정황을보매 작년가을 이래자최를 감추엇든 왕봉각(王鳳閣)일파인듯하다 이가치하여 밤이어두워지며 마적들은 어둠을타서 활호에잇든시체와 무기를 수습하여가지고 산상의산채는 방화한후 통화현(通化縣)경계로 자최를감추엇다 경비대도 밤시시이십분에 전사자와 부상경관을다리고 돌아왓다

空家에窃盜

삼일 오후세시삼십분경에 부내한강통(漢江通)삼십번지의 실업호 길촌금태랑(吉村金太郞)의집에 가족이외출한틈을타서 괴한이드러와 궤와상자속에서 보석반지 다섯개를 절취하야 도주하엿다는데 그반지는 시가오백원의물건이라 한다

집돈훔치고出家

부내 현석정(玄石町)칠십번지 우홍순(禹洪順)씨의 삼남 수기(洙基)(一二)는 이일오후열시쯤에 금고속에 들어잇든 현금삼백원을가지고 어듸론지 종적을감추고말엇는데 동리부랑자의 꾀임수올바든것갓다고 사일 본정서에 사원이 드러와다

車票사주기詐欺

龍山가는車票사주고潛跡

전남보성군벌교면칠동리(全南寶城郡筏橋面七洞里)에사는 농부 김보관(金寶寬)(二四)은 약이개월전에서울로 로동을 하려왓다가 일자리가 여의치못하야 그동안 푼푼이 모은돈오원을가지고 귀향할생각으로 삼일밤 경성역(京城驛)에서 차표를사라고하든중년령이 이십칠팔세가량되여보이는 곰보청년이 나타나서 자기가표를 사준다고하며 그돈을바더가지고 룡산행(龍山行)표한장을사준후 종적을감추고말엇는데 전기 김보관이가 본정서원에게울며호소하엿슴으로 동서에서 그를보호하고잇는중이라고한다

尋兒 조선옷에 곤색외투를입고 검정신을신은 七歲아이 二月二日오정에나갓사온대 차즈시는분게 百圓 사례를하겟습니다 市內鍾路町二五六番地

金海赤農事件 五名豫審에

남은八名은起訴猶豫

【釜山支局電話】경남김해군(金海郡)을 중심으로 농민적화운동을 전개하려다가 발각되여 지난일월이십오일에 경남도경찰부고등과에서 부산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된 김해적색농민조합운동사건(金海赤色農民組合運動事件)은 그간동검사국의 송전차석검사(松前次席檢事)가 엄중히 취조를하던바사일오후다시 반피고로재갑(盧在甲)등십삼명중 다섯명은 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의 죄명하에 정식으로 기소하야 동법원예심(豫審)에 회부하야 금후는길천예심판사(吉川豫審判事)가취조를 계속하리라하며 남은사람들은 전기소유예가되엿는데 예심에 회부된 피고들의주소 직업성명은다음과갓다

金海邑會峴里出生 雜貨商 盧在甲 二十八才

金海郡二北面出生 無職 金龍泰 二十八才

金海邑會峴里出生 農業 許展道 三十一才

金海邑北內洞出生 新聞記者 裵永甲 二十八才

金海邑北內洞出生 無職 宋世東 二十七才

(以上五名 廻附)

三日밤、宜川驛에서 貨物車三臺脫線

南北行旅客모다遲延

삼일오후열시사십오분 안동현렬차가 선천역(宣川驛)에 다이어서 교대작업을 하든중 그역제일호전철기에서 화차세대가 탈선하야 남행북행모다 통행하지 못하게되여 안동현을 오후열시 사십오분에 떠난부산행려객렬차는 동림(東林)역에서 세시간이나 련락식혓다 역에서 오전여섯시오십분에제일백팔호 렬차에 바꾸어타고경성에 대이여 부산일본내지방면으로가는 려객은 사일오후 두시 사십분 노조미에 수용하고 또동간역에서 내리는 려객은동성역에서 오후네시삼십분에 떠나는 제일백팔호 렬차에 수용 전기사고발생즉시로 평양으로부터는 제료렬차를 특별히내여서 평소대로 운전하고잇다

大膽한十歲少女

어린이속히기가일수 典當잡혀活動寫眞구경까지

경기도 광주군(京畿道廣州郡)에 본적을두고 일정한 주소가업는 김옥순(金玉順)(一〇)이라는소녀는 이일오후 황금정(黃金町)사정목 전차정류장 부근에서 본정(本町)사정목 리은영(李殷榮)(八)이라는 소년이구두를 들고가는것을 꾀여서 그구두를 림정(林町)박다영(朴多榮)전당포에일원오십전에 입질하여 가지고 황금좌(黃金座)에서 활동사진 구경을 하다가 본정서원에게체포되엿는데 그바게도 전기와가튼수단으로 십세미만의 소년소녀를 두번이나속여서 활동사진구경을 하엿다는데 그가티어린소녀의대담한 범행에는 취조하든경관도 혀를내두르고잇다한다

一度乃至九度高溫 추이업는겨울!

山東省에無移動의低氣壓

【仁川支局電話】작년 겨울이후 조선기후는 례년에 보지못하든 따뜻한일기로 일반이 거의아상히알만한 긔후인데 이것을인천관측소(仁川觀測所)에무른즉 근일은 저기압이 중국산동성(山東省)일대를중심으로 도모지 이동치안코 체재하야잇슴으로 조선기호(氣湖)일대는 그저기압의품속에 차여잇다시피하야잇는 현상임으로 아직도 삼사일동안은 이노픈기온이 계속될 모양이며 일기는 사일오후부터는 개일듯하다 사일오전각지기온을 작년이때기온에 비교하면 다음과가티 일반적으로 노팟다

	今年	比昨年 高低
中江鎭	零下二〇度	四度高
新義州	零下六度	五度高
平壤	零下三度	七度高
仁川	零下二度	八度高
京城	一度	七高度
全州	五度	九度高
木浦	五度	六度高
濟州島	二度	一度低
雄基	零下十一度	一度低
城津	零下六度	一度高
元山	零下五度	二度低
江陵	零下一度	五度高
大邱	零下五度	一度低
釜山	四度	四度高

崇實三校救命運動經過

唯一한回生策은 崇中分離派의讓步뿐

大局的見地에서善處를期待

【平壤】폐교의운명에 직면하게된 평양숭실전문학교(崇專)을위시하여 숭실중학과 숭의녀학교(崇義女校)등 세학교문제는 드디어 평양사회문제화하고잇다 숭전교수회(崇專教授會)와 숭전학생대회(崇專學生大會)에서는 비장한결의와 성명서까지 발표하엿고 반면에 세학교경영자측인 밋숭회에서는 평남도당국을 방문하고 "폐교"에 의한 정리사항을 보고하는동시에 금후 폐교수속에 대한 제의를 설명하고 도라가게되어 세학교의운명은 풍전등화(風前燈火)와가튼 국면(局面)에까지 도달하고 마럿스므로 평양 각사회에서는 아러평양교육계의 지보가될뿐아니라 우리반도교육계의 중대역할을하는 세학교를 죽으라고방임할수업다하여 세학교존속 운동을위하여 궐기를보게되엿다

현재의 정세로보아서 사십년의광휘잇는 력사를가진 세학교를 살릴길은 오직한길이 잇슬뿐이니 숭실중학분리 운동을단연중지하는동시에 옛날의 세명위원의 공동일치정신에 화원(還元)하여 선교회실행위원회에 가장존속한 수속을밟아 삼교일체존속(三校一體存續)의 초지관철(初志貫徹)을기약하는것뿐에 머저진다 이때문에각방면에서는 숭중의대국(大局)을 아량잇는눈으로 관찰하여 공존공영의 진선진미(盡善盡美)를다하도록 일반은간원하여 마지안는터이다 이제 세학교문제를 중심으로 회합했든 몃회합의 결의사항을 보도하여 여론의 어떠한것을알리려한다

校友會의決議로 鄭校長에讓步를勸告

량모교를 위시하여 숭의녀학교의 운명의급박을 고하게되자 숭전과 숭중졸업생으로 조직된 숭실교우회(崇實校友會)에서는삼일오후 다섯시부터 부내순영리 긴급간사회(緊急幹事會)를개최하고 장시간토론한결과 위선대표우용익(禹溶翊) 박봉조(朴鳳祚)등 두명을 선거하여 숭중교장 정두현씨를 방문하고 적극양보를 간구하기로되엿다 이결과를 보아 다시간사회나 대회를 소집하여 최후적태도를 결정하기로되엿는데 이회합에서도 오직 나아갈길은 숭중분리운동의 양보에잇슬뿐이라는 결론을지게되엿다

社會各方面網羅 八十餘名도蹶起

사회각방면인사 팔십여명을망라하여가지고 숭전등세학교의존속을위하여 궐기하게된 숭전、숭중、숭의삼교존속진흥비회(後援存進運動會)에서는 사일오후네시부터 부내연화리(蓮花里)로정동회루(同和樓)에서 대회를개최키로되여 방금통지서를 인쇄중인데 이보다압서서 준비위원오씨를 선거하여 각방면당국자를 방문하고 제삼자적립장에서 냉정한조사를한후 대회에보고하여 전평양적 정당한여론을 만드러엄정한 비판을가하기로 하는일방 삼교일체의 존속운동을적극지지키로되엿다

調印一步前에 破裂된引繼交涉

各敎會主任牧師를召集코 그동안經過一切報告

숭전 숭중 숭의등세학교문제를 걱정하는 선배조만식(曹晩植) 오윤선(吳胤善)량씨는 사일오후 네시삼십분부터 부내장별리(將別里) 평화식당(平和食堂)에서 평양부내 장로파각교회의 주임목사(主任牧師)를 초청하고 세학교문제에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엿섯는데 이날에출석햇든 각교회의 주임목사는 다음과가트며 마충조만식씨로부터 그동안의 세학교경영위원과 선교사회 실행위원회의 교섭전말을 일일이 보고하는일방 교섭성공의 일보를압두고 숭중분리운동의 대두로 기막히고 애석하게도 교섭은 정돈되엿고 따라서 세학교의운명은 여지업는위기에 함입햇다는것을 설명햇고 오윤선씨는작춘이래 세학교의장래를 극히우려하여 평양부내의교회방면 일반사회방면의 재산가를 샅샅히 방문하고 세학교존속을 력설한후 재단을구햇지만 응하는자가 업서 경성의모재단을 설득하여 선교회실행위원회와 교섭을 개시하여 조인을 보게까지되엿슬때에 숭중분리파의 재단 리춘섭(李春燮)씨가 조오량씨를 방문하고、숭중경영을 신청해왓스나 경성대재단의 의향을무러보아 확답을할것을 조건부(條件附)로승낙햇다가 경성재단이 숭실전문과 숭중의형제교는 불가분리(不可分離)를 말햇기때문에 리춘섭씨측에 이뜻을 전달하여중분한형해를 어덧는데 일이 여기에 이르게되엿스니 따한일이라는 설명을했고 이어서 숭의여학교는 재단법인백선행기념관(財團法人白善行記念舘)리사회에서 인계경영할것을결의하여 세학교는 순풍에돗을단 감이업지안튼순간 불가해의 숭중분리운동은 세학교의조국을 고하게까지이르럿다고 설명했다 출석했든 목사중에서 질문이속출한후 김화식(金化湜) 리인식(李仁植) 량목사의동의로 다음과가튼것을 결의했다

◇決議

一、崇中校長鄭斗鉉氏와 李春燮兩氏에게 讓步를積極勸告하여 以前狀態에還元시킨後 初志貫徹을圖할것 그리구 宣敎會側에도 同樣의勸告를할것

一、鄭斗鉉、李春燮兩氏가 讓步치안코면 經營委員金東元、高漢奎兩氏로 最初대로의交涉을 하게하는同時에 宣敎會側에도 積極勸告할것

◇出席했든牧師

▲箕林里敎會李仁植牧師 ▲西門外敎會林鍾純牧師 ▲倉洞敎會金化湜牧師 ▲東大院敎會金永俊牧師 ▲京昌門敎會韓承坤牧師 ▲蓮花洞敎會崔志化牧師 ▲陵鄕里敎會李裕澤牧師 ▲西城里敎會康炳錫牧師

運動競技

來七日에擧行할 一、二部六校參加 女子氷上競技

延期되엿든 朝新主催의 全朝鮮女子氷上競技大會는 來七日午前十時半부터 淸凉里町링크에서 行할터인데 參加校는第一部(一般女子、女子中等學校三年以上)에는 멀리咸興永生女高普를비롯하야 同德女高、京城女高、京城保育、龍谷高女 第二部(女子中等學校二年以下)에는 同德女高、京城女高 第二高女、龍谷高女等의 六個校選手八十餘名이 出戰할터이라고한다

東京學窓에도라간 學生軍(昨三日밤 京城驛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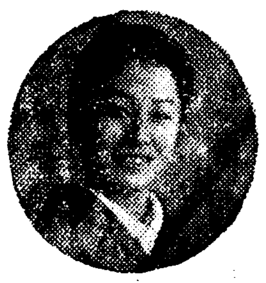
天氣豫報

概況 七五九粍의 低氣壓은 山東半島에잇서 徐徐히東進하고잇다 昨日北海道東岸에잇든 優勢한低氣壓은 『오호-츠크』海로退去하엿다 七六八粍의高氣壓은 西日本과西伯利亞東部에로 퍼지고잇서 朝鮮과滿洲는 흐리고 處處에小雪이 잇스나 關釜海峽과 關東以西는晴明하고 裏日本과 東北地方以北은 日氣가흐리여處處에降雪이잇다

豫報 今夜는눈이내리고明日은變後晴이다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最高 零度七 同最低 零下一度七 今朝最低 零下三度三 今日正午 零下五度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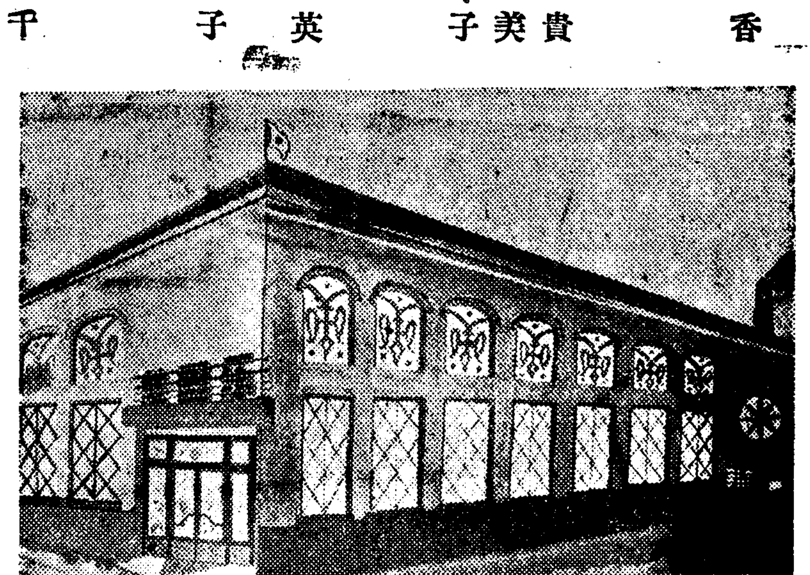
斯界의殿堂 樂園莊 超滿員禮讚



照香 貴美子 英子 千壽

客臘에 江湖諸彦의盛大한 聲援과指示(에依하야 誕)生한弊莊은 國家非常時의 低雲이또고이(는)裡에도 大過업시 三十六年을보내고 三(十七年을)마지하면서부터 連日滿員의盛況을 이루(는것)은 弊莊의無上한榮光이라고 生覺하오며 삼(가 한)마듸 感謝한人事를드리고저하는바입니다 (압흐)로 設備는勿論女給들의 써-비스에는 格別한(注)意를다하고 一律的으로 訓練敎導하야 從來斯界弊風을 一掃하는同時에 諸賢의期待하신(바에)어그러짐이업시 十二分의努力을드리고저하오니 諸賢의 理想的社交休息所로나또는 旅行의慰安處로도 利用하여주시기를眞心으로 懇願하옵는바입니다

主人 謹白



樂園莊外觀

弊莊 五大特長

一、贅美、豪雅를자랑하는 設備、裝飾

二、三七年式『스팀』裝置

三、京城第一을자랑하는 廉價美味의食事

四、『커-피』한잔으로美女와더부러즐거웁게한다

五、一日의勞苦를紳士的으로이즐수잇슴

絶對的『노-틥•타임』 自午前十一時 至午後四時

御料理

定食 A 五十錢 三品付 B 一圓 六品付

一品料理 時價 (弊莊自慢의各種)

鍾路十字街(東一銀行本店橫) 樂園莊 電光二七一七番

驅黴最新强力劑

푸로다ㅣ

PROTAR

매독창병엔 푸로다ㅣ가제일이오

경성서대문 신기신성당에 잇슴니다

육백육호를여러대써도안되는분은꼭한번시험하시오

【가 약】

병이중한데는 칠원
병이원만하면 오원
병이시초면 삼원
병이좀심하면칠원분이좃습기다

지방송료
선금 무료
대금인환 삼십오전

매독에는 륙백륙호만 마지면곳낫는 줄알엇섯다 그런데근래(近來)륙백륙호로매독이완전히 근본적으로완치된다는말도듯고 또실지로연구하야보앗다 또 매독환자는그다지만치안흔줄알엇섯다 그러나 그생각이전연(全然)그본적으로잘못알엇다는 것이판명되엿다 즉륙백륙호를 매독에걸려서즉시 계속하야 일주일만에 한번식십여대나마저야 겨우일시적효력을알게되고 잠간동안잠복시켜 매독을눌러서못성하게 하얏다는것을 알엇다(일주일전에 또마질수업는것이다 일주일전에 또마지면딴병을알게되고 잘못하면죽는고로일주일에만 한번식맛는것이다)다시말하면 결국 륙백륙호로는 절대로는 매독이근본적로완치되지안코 또십여대나주사를마저야 겨우일시적정지를시길수잇스나곳또다 시재발하는것을 알엇다 그러면륙백륙호를칠십일이상몰일못보고 돈을오、륙십원이상허비하고 주사를마젓짜아모소용이업고귀중한시간과금전만허비한다는것을 알엇다 그뿐더러륙백륙호를마지면 몸이약한사람은약일주일동안은일을못하고 알코들어누어서고통을밧는 사람이만타 또주사를잘못마저서 즉수사가정맥외(靜脈外)로새면살이썩어죽게되는고로 곳팔(腕)을잘러버리고병신이(不具者)되는사람이만흔것을알엇다 또 그뿐더러열중에칠、팔명(十中七、八名)은돈이업고서서(金錢과時間이)주사를열대(十本)이상맛지못하고병을그대로두어서살이떡떡썩어들가는것을만히보앗다 그일예(其一例)를들면하로는경성시내에잇는한남자가원전신 매독이만창이된시골머슴을다리고(雇人)왓는례와서 이병좀고처주시요하고 랫만데그병처(患部)를보고 깜작놀고다 그병처라는것은당초에 말할수업는것이다 즉분문(肛門)과낭(囊)사이에이전(二錢)짜리 동전만하게큰구멍(孔)이빵뚜러저잇섯다 아이저러케몸에구멍이뚜러지고도사람이어떠케살어왓나하고 차차물어보니서울서머슴사리를하다가 시골서 역시 머슴사리를하는데 우연히매독에걸려차차살이썩어먹어들어가나머슴의신세라약쌀돈도업고 주사마즐돈도업고하야 그대로내버려두엇더니 그러케 구멍이크게 뚜러젓고요지음은전신에 종긔부스럼이(梅瘡腫)륙륙터저 인제는못살것가려서 그전살던서울 주인을 차저와서 그전살어든정의로 사람좀살려주시오하고애걸을하러온것이 판명되엿다 그리하야 그주인이돈은내가낼터이니이불상한사람을좀살려주시요 하고 차저왓섯다 그리하야약을 주엇더니 완전한 사람이되엿다 고편지가왓섯다또한례를들면 그후에웬남ᄉ가리한부인을데리고왓는데 얼굴이만창이되여송신처럼두더이가저서소름이끼치여서 눈으로는볼수업시되엇는대 그부인말이이병만곳처주면 죽어도그은헤를안잇겟다고 우는소리를하면 서하는말이여자가얼굴이이럿케되여 남이붓그러워살수가업스므로주사는물논 여러백대를맛고약이라는약은잇는대로다 一쓰고별별치료를다하여보왓스나종시낫지안하는대 엇던사람은암만매독으로치료하여도안나으니 매독이안이고풍이라고하야풍약을도무수히써도안되고하니신성당매독약푸로다ㅣ는 매독이아니고풍이라도나을수잇는야 고말을하얏다 신성당 매독약푸로ㅣ다는단술히매독창병만낫는것이안이고보혈청혈(補血、淸血)피를깨끗하게하는약입으로서 령매독이안이고풍이라도조흐니한번시험하여보라고하엿더니멧칠후에 그부인이왓는데말숙한미인이되여왓다아ㅣ참위대하구나약의힘이여그럿케도무섭게생겨눈으로볼수업든사람이 수일간에미인으로화하는것을보면 그리고그부인말이 인제는사러낫습니다 선생님의은덕이야 그야말로태산갓다고합니다 이러한자신하에서 그뒤로 차차연구를거듭하여보니무슨병이무섭다하여도 매독가티무서운병이업는것을알엇다 즉임질이나부인대하증냉병은 작손에게유전(遺傳)은안되는대 이매독은자손에게 유전할뿐더러칠팔대(七八代)를대대로전하여가는것을알엇고코가떠러지고〇도빠지는것을알게되엿다 즉남편에병니에걸면 그부인도물론폭걸니고이이도피속에그균(菌)을가지고나온다참무서운병이다 그리고매독환자는적은줄알엇더니사실은 그럿치안타ㅣ 비밀에붓치고말을안하는고로 업는것가트나그럿치안라열중에오륙명은잇다 그런대대개는상약이나주사나 만히하엿서도낫지못하고고통을밧는것을알엇다또수은(水銀)을피다가준은 사람이만코다른훈을 하다가병신된 사람이만타또조약상약(造藥常藥)을쓰다 가피를도하고구감(밥통과창자를버려)이나서죽게된사람이대부분이다그렴오로이무서운병을알면서그냥둘수업스므로충분히연구를하엿섯다 그리하엿드니감사장이매일답지하므로자신울어더이와가티광고를내게된것이다천만가지로약을하고 별별치료를다하여도안나어고통하는분은일시라도주저마시고곳시험하시오 틀닌업시낫습니다

지금곳안곳치면 대대손손칠팔대까지유전하는무서운병은매독이다

○매독은 당창、또는창병이라고하야 살이떡떡썩어들어가는 무서운병이다 코가떠러지고、이빠지는 병인줄은세상사람이다ㅣ아는바이다。 그런대 사람치고누구나다ㅣ병근이잇는대、병이발하야 심하야저야、치료를하나잘안낫고 나날이썩어도러간다、륙백륙호를맛는분도만흐나、잘안되는 모양이다、그증거는 이세상에서 매독이 업서지지 안는것을보드라도잘알수잇다。 그런대 이『푸로다』는 무엇보담답지하는 감상이 증명한다。 당신의생명을구하여주시는 구명주(救命主)가왓습니다。 천사가(天使)왓습니다。 이기회를일치마시고곡잡으시오。 일각이급하오니곳치료하시오、주저마시고 다음과가튼 증세의분은쓰시오。 여드름이만히나고 종기와헌데가잘나고、코가헐고、남녀간에국부가헐고、가렵고 전신에종기가룩룩터지는분은쓰시오。 눈이회미하고머리가빠지고、팔다리가 쑤시는분은쓰시오。 경성서대문 신성당으로주문하시면 당일로비밀히보내드립니다。 약은 환약이오 일주일에효를봅니다。

만일무효면엇더한책임이든지집니다

京城府西大門入口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三三四番・振替京城四九五〇番

매독전멸

000388

◇음…력…설…을…앞…두…고

코도 막 못풀일 귀병이 나기쉽다

감기로 코가 만흘때는 특별주의 / 업드려서 한편씩풀자

중이염(中耳炎)이란병은 열살이내의 어린애기들에게 제일만습니다. 그것도 이상스럽게 일월 이월 쯤 요맘쯤에 제일 만히 생기게되는 병입니다. 맨처음의 증세는 귀가 아프고 또 울고 두통이 나는데 그래서 어린애기들은 몹시 귀찬허하고 자꾸 울고 조그만 손으로 귀를 주무르거나 베개가튼데 귀를 부빕니다. 이런 증세가 보이거든 곳 중이염이 아닌가고 의심을두고 그의심이 어느정도까지 들어맛는것 갓거든 곳 의사에게 진단을 바더야합니다. 중이염의 치료를 게을리하다가는 뇌막염(腦膜炎) 패혈증(敗血症)가튼 무서운 병을 이르키게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중 백의 열은 죽어버립니다.

감기가 백가지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말도 잇거니와 중이염의시 대단치 안흔 감기로부터 일어 나는수가 가장 만습니다. 본래 우리네의 코에나 목에는 만흔 세균이 우글거리고 잇서서 몸이 건강하고 저항력이 셀 때는 터 틈어오저 못하고 잇지만은 한번 감기에 걸리어 몸이 좀약해지는 날 폐염균(肺炎菌) 류행성감기균(流行性感氣菌)등이 당당하게 처밀어 들어 옵니다. 중이염을 이르키는 균도 그런 균의 하나입니다. 보통때는 우리네의 코ㅅ속이나 목속에 업드려 잇다가 감기를 틈을 타가지고 귀로 몰려 비어 드는 것입니다.

×

코와 저속으로 목과 귀와 세 곳이 서로 통하는데 재채기를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이외에는 꼭 다치어 잇기때문으로 좀처럼 세균이 드나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감기에 걸리어 목이 아프거나 귀가 아프거나 하면 그곳이 그러케 꼭 다처 잇지 안코 좀 빼끔하게 될뿐이 아니라 기침도 하고 재채기도 잣고 크게 열릴 기회조차 드물지 안습니다. 그러때 균이 귀로 들어가서는 고막(鼓膜)편으로 잇는 중이강(中耳腔)에 염증(炎症)을 이르키어 중이염이 되고 중이염의 균이 다시 뇌막으로 들어 가서는 뇌막에 염증을 이르키어 뇌막염이 되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거든 반드시 양치질을 자주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코를 자조 풀거나 부는것도 처음 틀고서 두편을 함께 풀지 말고 반드시 업드려 풀되 한편을 누르고 다른 한편만을 풀어서 한편한편을 따로따로 풀도록 하십시오. 처음고서 두편을 한께 풀다가는 무리한 압력이 생기게 벌어져서 코ㅅ속과한께 세균이 귀로 들어 가기 쉽습니다. 어린애기들은 코와 목에서 귀로 통한 관(管)이 퍽 짜르고 굵기때문에 더한층 위험스럽습니다. 그러키때문으로 비단 감기뿐이 아닙니다. 축농증(蓄膿症)이 잇는 사람이나 편도선비대증(扁桃腺肥大症)이 잇는사람은 다 걸리기가 쉽습니다.

증세도 천차만별이라 열이 안나는 편도선이 별나는 수도 잇습니다. 평소부터 잘 주의하지 안허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개는 편도선으로 인하야 열이 삼십팔도나 오르게 됩니다. 떠구나 어린 애기일수록 중하게 알는것이 보통입니다.

족자다루는법

거풍을할때는습기업는날로 / 몬지 잘못털면 앙귀가처저

족자는 고것을 다루는 방법에 딸아서 수를 하고 못하는것이 달리어 잇습니다. 갑시 비싼 것일사록 더 일층세밀한 주의를 해야만 됩니다.

그림이든지 글씨든지 표구사집에 표구를 시킬때 흔히 재촉을 하지 안는 것이 좃습니다. 재촉을 해서 빨리하는 그만큼 못 쓰게 됩니다. 흔히 족자는 초봄 날에늘어저서 주룸이 잡히대자 개인날 다시 쳐어달리는 수가잇습니다. 그것이 오래두고 펀펀히 하지안한다이올씨다.

표구가 다 되거든 잡아내어 물것이라도 한 일주일쯤벽에 걸어서 양쪽을 잘마추엇다가 별어 잡아다리거나넘어 노치지말고 고르게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 족자를 너허 두는 상자에는 족자용의 방충제(防虫劑)를 너허두지안하면 되지안습니다.

가튼 족자를 일년열두달두고두고 걸어 놋는것은 그다지 신통치 안습니다. 운치로만 그런것도 아니요 보존상으로도 그럿습니다. 또 걸어노흘때 몬지를 떤다고 하거나 또는 그대로라도 건드리어서 떨어트리어서는 양축귀가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때 주의는 물론이요 몬저 나려노코서 떨어야합니다.

하조 귀지 중지하야 픽니허만 무는족자도 일년에두번쯤거풍을 시키지 안하서는안됩니다.

그거풍은 물론 날이아조청명하야 습기가 업는 천기를 고르는것이 좃습니다.

오-렌지·에드

귤 한개가 한사람의 분량인데 가로 반쪽에도리어 국 까가지고는 정한 까제에 두서너번 걸러서찌꺼이는 버리고 그 집만 컵에 담습니다. 그래서 사탕을 타고 끓는 물을부어서 먹는데 아조시고 떫어서 갑시싼 귤일사록 맛이 진합니다.

사과·에드

사과를 여덟쪽에 내어 껍질은 벗기뒤 그껍질과 함께넘비에 담고 물을 흔건이 부어다리다가 껍질은 끄내버리고 알마치 사탕을타서 그역시 정한 까제에 걸러냅니다. 껍질을 넛는것은 비치고와지라는 것이요 물론사과를 그대로 놀려서 걸르는것은 그 집이 진하라는것이지만 너무 진해서 껄직할때는 끓는물을 조금 부어서 먹는것도 좃습니다.

오렌지과·에드

오렌지·에드와 사과·에드를 반반으로 섞읍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더욱 훌륭합니다.

간호부

"목욕자조하고 속옷도깨끄시"

보는사람도낫이붉어진다

병원을 차저오는 수만흔 여성—그들은 모두 제각각 병을 고치겟다고 차저옵니다 그와가티 이곳에서 일 보고잇는 간호부인 우리로서도 어떠케하서라도 친절하게 취급하고 의사선생님의 지도대로 밤이고 새벽을가리지안코 늘환자들의 신변을 돌보고잇습니다

나이어린저들이 으슥한병원속에서 지리한 겨울밤을 환자와 함께새이게 될때꼿다운 이시절이 그만이러케 늙어버리는가 하는탄식이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돌려생각하면 죽엄과 생의경계선을 방황하면서 살아보겟다고 악을쓰는 환자의차 늘해저가는 혈맥을 집허보고 체온기를 팜아서 그들에게 회생의 기쁨을 맛보이겟다는 간절한마음으로나 의롬을 이저버리는때가 대부분입니다 무슨힘소리가트나 이러한 질거움과 섭력이어시는 하로라도 이러한

女対女

노릇을 못할것입니다. 수만흔 여자환자를 대해본경험에서 여자의단점을 들추어본다면 여러가지잇습니다 구식부인네는 병원을 차저올때 집에서는 고칠도리가업다고생각되도록 병을악화시켜가지고옵니다 너무 늦어서 차저오면 병원의선생을 어떠케곳치겟습니까?

그리고 몸들을 대개는물결하게 가집니다. 목욕을자조하지안는다든지 속옷을자조가라입지 못하고 것만번드르하게 채려가지고 옵니다 병든아이를 다리고 오는구식여자중에는 흔히 의사의 명령대로 치료하지안는분이 잇습니다 아이가운다던지 아퍼한다고 아이의 잠시동안 괴로워함을 애처롭게 여이여서 그냥업고나가버리는 사람이잇습니다 신식여자들은 입원하야서 너무지나치게 평케지내랴는것이 결점입니다 한밤중이라도 여페잇는 손수건을자기손으로 잡아쓰랴고 하지안코 사람을 성가시게굽니다

입원료를 내엿스니 모두가 마음대로 부릴수잇다는것을 너무지나치게 알고잇는것가태요 수지쪽이나 못쓸물건들을 그냥변실구석에 질펀하게 너러두고 차근차근정돈할줄모르며 간호부가 친절히 굴면 저편에서는코가 떼노피집니다

시골서온 환자들은 진찰할때 몹시무서워하고 옷을 죽으라고 벗지안습니다 간호부를 대할때는 어떠케공손케구는지 아마의사인줄아는 모양입니다 시골환자는 더욱 더친절히 해주고 십습니다 퇴원하야나갈때는 눈물을흘리고 작별하는 여자환자도 잇습니다

근시경을걸처도 미인될수잇다

안경테를 잘골라쓰면 / 얼골의결ㅅ점도가려저

어떠한 미인이라도 안경만걸치고 나서면 공연히 와살스럽고 건방저보입니다만은 안경도 고르기에 달리고 쓰기에 딸아서는 도리어 얼골의 결점을가리어 그럴듯하게됩니다

첫재로 도수가 맛는안경을써야만합니다. 도수가 틀리는것은 눈을 버릴뿐만이 아니라 눈까에 주룸이 지고 동자가흐리게 보여서 숭업습니다.

안경알도 얼골이 긴분은타원형을 써야지 동그란것을쓰면도리어 얼골이 더길어보이고 얼골이둥근분은 팔각형이나 조개형을써야지 타원형이나 원형이모도 나뿌고 이마가넓고 턱이숙내밀어 얼골이 삼각으로된분은 팔각형이나 타원형을 써야지 조개형이 글불이고 그냥각이진 얼골에는 타원형이나 조개형을써야지 팔각형이 보기숭업습니다

또유테안경은 얼골이 아조차게보이는까닭으로 젊으신네일사록 무테가 조흔데 단지 무테는넘어께지기가 쉬우니까 그저 열분빗의 세르로이드가 제일조흡니다. 그빗갈은 살ㅅ빗을 생각해서 청백한분은 금테가조코 혈색이 조흔분은 은테가조흡니다.

쓰는법은 눈동자와 안경복판과 꼭마저야지 좀 올라가면 눈썹이 가리어우습고 좀 나려가면 안경넘어로 사람을 보는것가터서 못씁니다.

안경을쓸때는 눈께의 화장을 유난스럽게 맙시요 그러고 그대신머리나 입께를 중심해서 화장을 하시요 장점에다가치중을 하여야지 단점에 치중하여서는 령리치못합니다 더구나 그러지안하도 안경으로 눈이더 돗보이는데 거기를집접 더 보이게하여서 신통치 안습니다

양장의경우 안경을쓰고서 수정목거리나 수정귀고리를 걸어서는 보기 실습니다 유리만 더덕더덕부치게되는까닭으로 맛입니다 모자도 챙이업는것은 숭업습니다 그것은 점점더안경을 눈에띄우도록 되는까닭에 맛입니다.

二月六日 午後七時
女子中等學校卒業生
慰安音樂大會
場所鍾路中央基督青年會館에서
主催 中央保育學校
後援 朝鮮日報學藝部

우리차지

나무장사

바람은 차다 소목에 달린방울이 땡그렁 땡그렁한다 해가 저서어둡도록 나무를 팔지못하고 행길ㅅ가에 우두먼히서잇는 로인 나무를팔면 막내딸 설빔을 사가지고 오십리길을 밤ㅅ중에 거러갈모양이다

(글쓴사람 진숙영)

長篇小說

抗進記 (9)

金廷漢 作
鄭玄雄 畵

다라단다라다라 다라다—

그들이 즐거하는 ××가의 곡조다. 그들은 파면 청변당게두팔을 내저으며 의기양양하다.

「비령뱅을 자식들!」

두호는 보다못해 몽둥하끄이려섯다. 그러나 아버지는 빤사가 귀치안흔듯이 새우등을 해가지고 낫질만 재촉하고, 어머니는 비여둔 보릿단을 바쁘게 주서모은다고 말을어진 머리카락이 더욱 사납게 헛트러젓다.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작고만 모여들고 난데업는 마파람은 련방 비를 재촉하는듯. 한번만 더 비를 마치고보면 아주 그놈 마저내 정을 들어보고 소리를 내질럿다. 그러나 흥건에 몰리지안흘을 지 애에서는 아무 대답이 업섯다.

「형님—」

두호는 다시 고함을 첫다. 그제야 부처님붙은 겨우 이쪽을 바라본다.

「형님 곳 빗방울이 떠러지랴는데 왜 그리고 잇서요? 어서 좀 와주시오— 보릴 빨리 치워야죠—」

두호의 말에 태호는 달울하지안햇다. 다만 배우에서는 잠간 서로 얼굴을 치어다보는듯 하더니 이내 옷음소리가 딱딱 글—벌어진다.

「에이 떠런 것들!」

두호는 당장 강에 뛰어들어서 고놈의탄배를 따 뒤어며버렷스면 속이 시원할것 가텃다.

「애, 그만 둬라. 은혼은 장부에서 ××주의 하는가보다!」

뒤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위로해 주는듯이 말을 포레댓다. 그는 저번날 그일이 잇슨 후로는 은아를 태호에게는 틀림 지 안을 마지안헛다.

두호는 적부도드하면서 다시 일을 시작햇스나 일은 전연히 손에 잡히지안코 뒤에 숙만 무럭무럭 떠래엿다.

모혀나 밀은 힘대로 아니오 허려 힘에 버서난일을 첫다. 아버지도 나이를 생각지안코 열심스럽게 떠허젓다.

날세는 암험거 아주영 우기를 뙤고, 먼산 미리 차차 어두어독 헤와다.

어머니는 혹자남어서 허뭇지 둥 이삭을줄고 두호와 아버지는 무거운 보리짐을 지고는 장마에 씻긴 자갈길을 끼우뚱거리다가는 주춤서고 어기적거리다가는 쉬곤하엿다. 두호는 아버지의 그 저름대가리 말은 다리가 애처롭게 떨리는 모양을 참아 볼수가 업섯다. 혹시 저러다가 정강이가 뒤집히지나 안흘까 미상을 두려운 생각까지 낫다.

「아버지 그리지마시고 멧단재거 떠 언저주시요.」

두호는 방금 자기도 어깨가 내려안즐드시 아픈것을 금작이 이저버린드시 가당치안흔 얼루를낸다.

「괜찬허! 오십여번을 꼿내 일로서 처다진 빼다귀에 이까지 보리멧단 떠언것다고 간대로집게 휘여질거라고?」

바첨지는 도락도 안붑다. 그리면서도 숨은더욱 헐떡헐떡.

두호도 숨을 헐근거리며

「제—기 날세가 오늘만은 할아쉬알텐데……。」

「오늘만?」하고 바첨지는 못맛당한듯이,

「등넘엣 논보리는 어쩌자고?」

「그게야 나종 모낼때 비지오 지금 미리 치워노면 그놈이면 저 갈어버리게요.」

「그러다가 제—기, 논도 일료보리까지 버리면 어떠케?」

「버렷스면 버렷지! 기왕 논이 떠러지라는 판에 그까진보리명말 엑겨서 뭘해요.」

「그래도……」

「괜찬허요. 걱정할것 업서요.」하고 두호는어떠케 자신이나잇는듯이

「끗까지 해봅시다. 결국엔어시논을 뺄라는 놈이 들렛거련요.」

「하지만 이놈의 세상이 고래 찬혼가! 군수의 청답도 그랫고……。」

「그러라고 도나개나 세상만따라서 어쩌겟요? 차우런한건와외빠야죠.」

두호는 절은 마음에 불을 축 말이거치리진다.

「물라. 잘될까……?」

바첨지는 역시 멍유한 모양이다.

「하여튼 해보겟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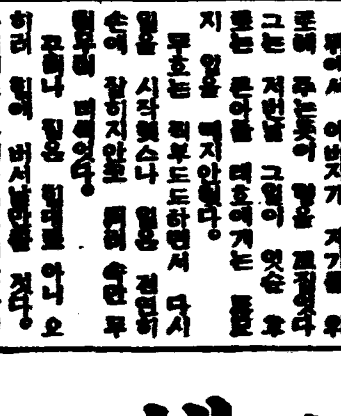
두호는 말에 힘을 주며 결심을 보인다.

등넘엣논이란건 윤내에 사는 부자의 토지로서 두호의 집에서는 벌서 여러해동안을 부처오는것인데 금년에 와서 뜻박게 사이녀석이 나서서 그전에 지주와 약속이 되여잇섯느니 어쨋느니하고는 그만 저가 떼여부칠라고 들엇다. 그래서 바첨지는 지주에게도 가보고 사음놈에게 또 가보고 나종에는 군청에까지 가서 짜듯이 사정을 해봣스나 모두가 헛일——소작권은 결국 사음에게로 옮겨가게되엿다.

두호는 이것만 생각하면 불현듯이 화가 치밀엇다. 그리고 벌서부터 사음놈이 보리를 비여내라고 조흔것을 여래것비지안코 버티는 판이다.

그는 지금도 무거운 짐을진채 이일부로 생각을 가다듬고 이를 간다. 벌서 그의 머리속에는 영애로 말미암은 지질한생각은 남아잇지 안타. 오직, 어떠케하면 이 무리한 현실을물리칠수가 잇슬가 하는 한마음뿐이다.

「아해」업는 부인의서름을 누구에게하소연하리오



모—도가부인병이원인
엇더케하면 자택에서 치료할수 잇을가?

平素에는健康하든婦人이라도多年間家庭生活을하고 시부모와남편시중에골몰하야 身體가점점虛弱해지는故로 婦人에게따르는모든疾病과모든子宮病이 차차로發生하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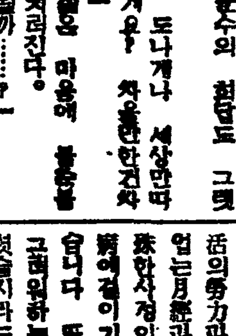
勿論어떠한病이든지 처음으로發生할때에는 누구든지等閑히하기쉬운것과가티 婦人病에잇서서도病이처음始作될때는別로苦痛한것이업고輕症이므로婦人病에對한多少의豫備的智識이업스면 治療를게을이하게되므로 病勢는不知中에깁히侵入하야 後日에婦人病이잘못된것을 비로소깨닷는그날에서 벌서病根이깁고病毒이全身에퍼젓스므로 病始初가트면一日 三四日의治療로能히根治될것도 或은七八日은治療하게되며 三四日의治療로完全히根治되고말것도 二週日乃至五週日의 治療를해야 낫게되므로物質的、精神的損失은 더한層多大할것입니다 그러므로 婦人自身은勿論이오 婦人과關係가깁흔男便이나 시부모까지라도 婦人病에對한基礎智識과간단한家庭療法만은 반드시알어두엇다가 病이重하게되기前에治療하여야될니다.

대개婦人은 先天的으로體質이弱한데다가 시집사리와가튼家庭生活의勞力과生理的으로 男子에게업는月經과姙娠出産、性交가튼特殊한사정이잇스므로 비록미아마 疾病에걸이기쉬운條件을具備하고잇습니다 또한우리朝鮮婦人은 못그러워하는性質이만허서 病에걸렷슬지라도 부모에게나동무에게나男便에게까지라도 말하기를실혀하며 自己혼자서억지로苦痛을참고지냅니다 더욱이子宮病가튼것이야 더욱더말하기를실혀합니다 그런만아니라婦人에게는 不幸하게도經濟的自由가업스므로病을곳치고십허도 金錢이여의치못하는수도만습니다 이러한여러가지婦人의特殊事情과 婦人病에對한醫藥智識이업스므로 病을경솔히보는同時에 病에對한調養도充分히하지못합니다 따라서婦人病은 完全히快治하는일이적으므로 婦人病이라는것은 곳칠수업는 先天的惡症처럼여이게되엿습니다

그러나 本舖에서는 三十餘年間研究에 研究를거듭하야 婦人病藥을販賣하던關係上 三大醫學博士의指示를밧고 醫藥에비에依하야 婦人諸病을알기쉽게 자세히써서 누구든지 읽으면 잘알수잇는小冊子를 著述하야 一般婦人에게 多少間이라도 婦人病에對한 智識을普及식히는 同時에 簡單한病은 自宅에서 스사로治療하는 方法까지 一一히記入하야 누구든지 請求하시는대로無代進呈합니다. 一般婦人은 勿論이오 男子까지라도 多讀請求해보시기를 歡迎합니다 특히醫藥이發達된 文明時代에婦人病根治藥이發見된事實가잇겟습니다

허리와손발이冷하고 月經이不順하고계라든지나누런코를가는대하증이흘으며 結婚한지三年五年이지나도록 애기를배지못하는婦人은 틀림업시 婦人病이잘못된증거이오니 婦人病良藥『命之母』를 服用하시고 根治하기바랍니다 命之母를 服用하시면 얼골에화색이돗고 주름살이펴지고 아름다워지며 손발이떠워지고 顯著히 淨血作用을하야 體內의毒素를全部滅殺식히고 病弱해진細胞를回復식혀주는結果 血液이淨潔하게되는同時에女性의호르몬이旺盛하야지면 不順하던月經이順調롭게되며대하증이根治되며姙娠까지하게됩니다

命之母는 各地有名藥店에서販賣하오며 藥價는六日分一圓 十二日分二圓 二十日分三圓 三十五日分五圓까지잇습니다 特히本舖로注文하야服用하고자하는분은病勢를자서히 記入해보내시면適當한藥을代金引換郵便으로 急送합니다



東京市京橋區入舟町三
命之母本舖·笹岡省三藥房
振替口座東京五〇五〇番·電話京橋二八八七番

婦人病自宅治療書無代進呈

ワカケキ
丘の一本松
新しき土
金色夜叉 新興 (長根彥)
◀와너뿌러더社超特作映畫 海洋大維篇 海외野獸
◀東活京都大作映畫時代劇 도로레스·코스테로嬢 主演 決戰荒神山 月形龍之助 阿部九州男 主演
次週豫告‖金永煥一行來演 舊正初映畫‖朝鮮語全發聲 노래朝鮮·榮光의길·古城의罪·弓矢莊의慘劇·五百年後의世界·海賊早稻田

里町 上在十 光武劇場
◇二月二日부터三日間◇ 每日晝夜二回上映 낫一時 밤七時 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二大豪華版大公演◇
◇시미유엘골드윈特作全發聲日本版 노—만타루—크氏監督作品
大爆笑 喜活劇 當り屋勘太全十一卷
喜活劇玉 에테이칸다—主演 골드윈걸數百名出演
◇리라이안스社超特作유社提供全發聲日本版!! 삼오든氏監督作品G멘大活劇!!
暗黑街全滅 全十卷
本映畫는米國司法省特別刑事의實話!! 리차—아렌氏 봐지니아부류—쓰孃主演
全發聲時代 漫畫 一篇
天然色漫畫 黃金의王者 一篇
次週‖西遊記孫悟空‖키톤獸人擊破쿠—캉大成功

新堂町 電本2 三九三 新富座
二月三日부터特別大封切 유社超特作全發聲大連續篇 名匠헤이대이라—氏大作品!
天空快速王

黃金町 電光二九五 優美館
子守唄赤誠夜嵐 近衛十四郎 月宮乙女 主演
魔術の女王 松旭齋天勝特別主演 竹久天惠子 助演
大都映畫特作時代劇 原作脚色監督岡田敬
P·C·L超大作全發聲 木村莊十二氏監督 松旭齋天勝의一代艶史
二月三日早旦特別大封切 ヱヌヅアサル社超特作 ボリスカーロフ氏主演
鐵の爪 前篇
樫三四郎松浦築枝主演
四日ヨリ六日マデ三日間限リ 階下席 十錢均一 (公開)
海江田譲二 月宮乙女主演 大鴉
定九郞破れ笠
每日晝夜三回興行
永樂町 本局〇一四 中央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技巧主義의 檢討

文壇의 動向과 關聯시키어 【2】

韓 雪 野

그러나 人間生活이 比較的同質的 同色的이니만치 文學上에잇서서 甲의 作品도 乙의作品도 結局 그비슷비슷한生活을 그리는데에 그칠수밧게업스니 이러함으로서는 各作家가 出衆과特色을 期할수업게되다. 即 거진가튼生活과 따라서거진가튼意識을 作品上에再現한대야 거기서는 커다란技術的大作을 創造하기가어려운것이다. 다시한번바구어말하면 彼此生活意識이 비슷비슷하기때문에 어떠한作家가 가령 어떤生活을따다가 表現한다하더라도 그것은結局 다른사람의것이나 거진內容을가티하게된다. 그리하야 創造的인文學的衝動과關心은 自然 엄청난奇想으로나 그러치안흐면 技巧的方向을 돌리게된다

어쨋든 이와가티 거진一模一樣의生活을 그리는데서오는 文學의作品의 固定과 狹隘을 挽回하기爲하야 技巧主義라는 文學上의鍊金術이 文學人의當面要求로 擡頭하여온것이다 그리하야 文學藝術은 너도나도 技術을다투[illegible]으로서 特色을내라하고 形式을다듬기로서 남을제치려하기에至하엿다.

그리고 詩人은詩에 小說家는 小說에 1이러케 于先各各 그所有의동산(藝術)을 各自의封建的인城壁으로하고 그안에서 求美한內容을鍊金하는 技巧를練磨하기에만 專心專力한것이 封建時代에잇든 古典文學의特徵이엇다 말하자면 文學에잇서서의 封建性과 教條主義의定立을보게되어 그것은 各自의領野를 固守하야 作品을 技術的으로 裝飾하는가운데서 自力의文學의教條와眼理를 樹立하려하엿다.

當代의文學的教養은 同質的인 封建社會에서 보다 過去의文獻(古典)과 權威된 文學遺産에서 個人主義的으로 따온것이 칠신더만하엿다 即當該期에보이는社會現象이나 人間生活의에스프리에는 出衆한特色이업슴으로 그것을取材하기보다는 旣往의豐富한歷史的實踐中에서 自己의生理에맛는 古典, 即오랜 歷史와人間生活의練磨中에서 싸여진形式美를 攝取하려하엿다.

그럼으로 過去의古典主義또는 擬古主義와그技術偏重은 그時代의 經濟關係와 社會情勢을 따나서는 說明할수업는것이다.

그러나 老衰한機構와 秩序가 漸次 露骨的으로 矛盾을 드러내게되고 따라서 그안에서의對立과反撥의 部面과密度가 커지게되면 그만치人間의 生活과意識도 各各그社會的 地位와環境에따라서 互相的으로 聚隙이甚하여지게되다, 따라서生活上의同質的同色的인安定이 업서지고漸次 異質的異端的으로 갈리게되는것이다. 그리하야 이러한時期에잇서서는 일즉經驗한일이업슬만치 여러가지의 새事實과現象이 急速도로 展開되는것이다. 이러한變動은 安穩에馴致된 人間의눈에는 全혀놀라운 새現象이 아닐수업다

더욱이 敏感한 藝術家의눈에는 무엇보다 이새로이러나는事實과現象은 實로 文學의花園에 새로 따올 놀라운꼿입에 틀림업섯다. 그러나 아직이꼿의生理를 잘알지못함으로 거기에맛는 溫床이나 花盆이나 花壇을 于先만들 餘裕와 準備가업시 于先 새로핀異色의꼿을 移植하기에만 汲汲하엿다. 旣成花園의 多彩多樣한꼿들은 이新來의서 빠른꼬촐 비웃고 생하고 排斥하엿스나 그러나 前者의多彩에 代하야 後者의新興性과健康性은 實로무서운將來를 約束하는것이엇다. 뿐만아니라 이것은 舊來의꼿과並存하야 그美를자랑할存在로서 重要視되는것보다 더나아가서 實로 舊來의꼿과代替하야 또는舊來의꼬츨繼承하야 새로운花園을 이루는 그歷史的宿命에 보다優位性이잇는것이다. 밟혀도밟혀도 짓구지머리를처드는 高架菜地方의 路傍雜草를보고 그땅의英雄 하지무라-드의性格을 形象化한 톨스토이의눈은 實로 이新來의꼬츨發見하는 藝術家의눈이아니면안되엿다.

뭇허지는封建社會의藝術이로맨티시즘文學과 그와代替한 新興부르조아의自然主義 文學이나 또는 이自然主義의뒤를이은 近來의新興文學의 比較研究에서도 우리는 上述한 旣成花園의꼿들과 新來의꼿의 對照를 發見할수잇는것이다.

現代歷史哲學의 回顧와展望 ⑥

鄭 賢 奎

이가튼 段階的發展이라든가 段階的移行이라든가 類型的移行이라든가 하는것은 다못 特定人種의 勃興現象과衰微現象의 交替라든가 特定人種의 血液分布의 濃淡이라든가 人種的性格의 光·暗의 顯現에 不過한것이다. 여기에서 歷史를 說明하는 原理란 根源的으로 成生과 消滅 異質的發展일수는업고 다못 人種的勢力 人種的血液 人種的性格의 『消·長』『盛·衰』『濃·淡』『光·暗』 이가튼 原理뿐이다 이가튼 原理에서는 特定人種의 勢力의 消長 盛衰는

根 根的으로 그것의性格의 變化를 意味하는것이 아니라, 特定人種의 永久不變의 太陽가튼 性格에 마리구름이 길때 衰微現象이 생기며 그구름이 지나갈때 勃興現象이 오는것이다 即하우프트의 歷史觀에서는 構成的 進化觀이니 樂天的段階論이니 하는것은 根本的으로 除去되고 그는主張한다. 우리는 이곳에서도 다른한개의 歷史意識이 除去된 史觀을 볼수잇다.

明日의歷史哲學

우리는 以上에서 現代歷史哲學의 傾向을 方法一元論과 方法二元論의 各一面의抽象性을止揚하고 現實的歷史的社會를 具體的으로

把握 하려는곳에 求하엿다 우에말한 『요아힘·하우포른』의 人類的有機體的史觀도 그類例의 하나에 屬하는것으로 보앗거니와 우리는 가까히 京都帝大의學派 特히 西田幾太郞의 無의辨證法 田邊元의 絕對辨證法 三木淸의 [illegible]辨證法을 그가튼傾向의 한개의조흔例로 볼수엄슬것인가.

그런데 問題의 中心은 거저 方法論的一元主義와 方法論的二元主義의 論理的抽象性을 어떠케 止揚할것인가 한다든가 그것을 止揚하기 爲하야는 어떤思辨的論理를 要하는가하는 이러한問題에잇지안코 다만 어떠케하여야 現實的社會를 具體的으로 把握할수잇슬까 하는데잇다 即 어떤論理에 依하야 現實的社會를 把握할까 하는데잇지안코 現實的社會를 具體的으로把握하는論理는 어떤것이 되지안허서는안되다 그러므로 結局은 現實的社會는 具體的으로 어떤構造를 가지는가하는問題에 歸着된다.

具體的인 歷史的社會的世界란 疎外된社會 客觀的으로

措定 되社會 即 自然實在다. 이러케 把握하는것이 現實的社會의 客觀的把握이다. 이點을 忘却한곳에 『드로이젠』『딜타이』『리켈트』等의 方法二元論의 抽象性이잇다. 그리하야 그네들은 現實的社會란 具體的으로 把握할수업섯다.

다시 具體的인 歷史的社會的世界란 人間의發生行爲에 依하야 疎外에서 恢復할수잇는世界即歷史的實在인것이다. 이러케 把握하는것이 現實的社會의 主體的把握이다 이點을 忘却한곳에 『헤겔』『랑프레흐트』等의 方法一元論의 抽象性이잇다. 그리하야 그네들도 現實的社會를 具體的으로 把握할수업섯다.

그러므로 結局具體的인 歷史的社會的 世界란 自然實在로肯定的으로 把握되는同時에 歷史的實在로 否定的으로 把握되여야할것이다.

이런觀點에서 이런立脚點에서 方法論的一元主義와 方法論的二元主義를 辨證法的으로 止揚하여야될것이다. 그런데 이와가튼 止揚은 折衷主義에 類推하야理解하여서는 안된다. 實로

悟 의論理란 綜合을 通하여서본다면 甲이든가 乙이든가 그러치안흐면 甲과乙의 折衷이든가 하는綜合以外에다른 綜合는 업슬것이다. 折衷이니 混合이니 하는것들은 實로 悟性의論理의 範疇안에서만 能許할수잇는 槪念들이다. 이가튼畛內를 넘어서는때, 即 悟性의論理를 넘어서는때 그것들의 存在理由는 消滅되고 마는것이다. 形式理論과 形而上學 이것들은 實로 近代社會에 奉仕할수잇섯든 한개의 論理的技術이어니와 그런世界에 近代人은 徹頭徹尾 이것을 死守하려든것이다. 그러나 社會의自己疎外와 過程은 마침내 이가튼論理를 止揚하고 새로운 論理的技術을 마련하엿스니 우에말한 西田哲學의 無의辨證法 田邊元의 絕對辨證法이라든가 『크로넬』思辨的辨證法, 『마르크·코-드』의 批判辨證法, 『리-베르트』의 悲劇辨證法이라든가 하는것이 곳 그것이다. 그러므로明日의 歷史哲學 即 歷史的社會的世界를 自然的 歷史的實在로 把握하려는 明日의歷史哲學 方法論的一元主義와 方法論的二元主義를 辨證法的으로 止揚하려는 明日의 歷史哲學은 모름지이 이와가튼論理들에 또는 이와

類似 한論理들에 그것의理論的基礎를 求할것은 明白한事實일것이다.

그런데 問題는 現實的社會라는것은 그언제 그어는때든지 抽象的으로 思辨的으로 把握될수잇는 그런것이 아니고 具體的 對象的으로 把握되여야 되기때문에 그것을把握할수잇는論理도, 그어떤意味로본든지, 抽象的論理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참다운意味로 現實的人間의歷史를 成立케하는 論理가아니어서는 안된다

人間이 歷史的社會的世界를創造한다. 이것을 가르처, 歷史的社會의 直線的限定이라한다. 歷史的社會를 다만 圓環的限定에서만 보고, 對象的實在인人間이 自己의對象的活動에 依하야 自己를 疎外하고 또다시 그가튼發生行爲에 依하야 이런疎外에서 恢復한다는 이런直線的限定 主體的把握을 否定하는 모든自然主義的歷史觀은 抽象的이다.

다음 人間은 다만 疎外된社會情況, 客觀的으로 措定된狀況에서만 歷史的社會的世界를 創造안다. 이것을 가르처 歷史的社會를 다만

直線 的限定에서만보고 圓環的限定에서 把握치못하는 主觀主義的歷史는 抽象的이다.

그러므로 現實的社會는 自然的 歷史的實在로 肯定的 否定的으로 客體的主體的으로, 圓環的 直線的으로 把握하는때 비로소具體的으로 把握되는것이다. 이러케 把握하는 論理만이 참다운 意味로 現實的人間의 歷史를成立케하는 論理인것이다. 그러나 이가튼論理에서 社會를 把握할수잇는 歷史的 社會的主體란이때 이現實에잇서서 疎外된社會가 다만疎外에서 把握되지안코 疎外의回復에서 把握되는것을肯定할수잇는 雅量을가진 그런社會的主體만 일것이다. 이런主體만이 現實的社會를 歷史的으로 把握할수잇슬것이다. (完)

一貫:心:樓:閑:話二一❶

牛歲有感 (上)

李 泰 俊

이웃에 한 고마운 婦人이 잇서서 해마다 우리집의 身數까지를 보하마준다. 올해는와서 내새해身數가 고기가 개천에서 바다로 드러가는 格이러라 한다. 단물에잇다 짠물로 드러가면 꼿죽을수가 아니냐 하니 그런뜻이 아니요 큰세상에서 넓고 풍성한대로 드러간다는 이롬이라한다. 우리는 흥겨게 웃엇다. 그런것을 밋드러서가 아니라 나뻐다는것보다는 조타는것이 좃흔다.

昨年의것은 이저지만 조흔것은 아니엿다. 더구나 丙子年이라고 모두 不安을 갓든 바람에 그전丙子年을 살아도 못본 우리도 덩다라 뒤숭숭해하엿다. 맨탈 안되여 東京서는 二·二六事件이 터지고 에디오피아가 亡해드러가고 스페인서 戰亂이 일어나고 朝鮮서는 例의 冷害니 水害니가 厄年다웁게 버러지고말엇다. 一時에 鮮滿主를 일허버리는 十數의 長老系監督派를 이런해가멧 번만 거퍼 차자온다면 빠리길지 못한 우리文化는 송두리채 빠저너머질지 모른다. 昨年은 全世界的으로 厄年이엿다.

個人으로도 이해를 多福하게 지낸이는 드믄듯, 모두를 丙子年닥이 만헛다. 우리집도 丙子年닥을 얼마를 햇는지 모른다. 半年이나 애를 [illegible] 出版해볼가 하다 永久히 [illegible]을 當하고만것, 다시 [illegible]해서볼길이 아득한 『黃眞伊』게다가 十月, 十一月, 十二月석달을 걸드려 세食口가 한꺼번에 입원만 느리지 안헛슬뿐 常時에나 오르는 聽疫을 격근것은, 厄年劇의 클라이막쓰엿다. 丙子年을 쥐해라한은 무슨根據에선지 모르나 쥐에게 무슨德을 바라리요.

그러나 多幸히 세食口가 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새옷을 입고 새해를 마지하는날 아침 우리집의 기뿜은 新生그것의기뿜이엿다. 더욱 새해는 쥐따위 요망스런 좀흉성의해가 아니라 어질고 우람스런 소의해라 우리의 希望은 더욱 탐스러울수 잇섯다. 게다가 새해身數가 吉하리라하니 어찌 이丑年에 드는 느낌이 업스리요

○

나는·어려서부터 소를 조와한셈이다. 말을 더조와하는 동무들이 만헛스나 나는 말은 무서워서 겨둘로 잘가지도못하엿다. 그러나 소는황소라도 그의 아페 갈수잇섯다. 그의 눈은 그의 고삐를 잡은 사람의 눈보다 더順해보엿다. 소는 打作섬울실코올뿐아니라 떡고리나 엿동고리도실코와다. 더구나 할머니께서 해주시던 콩쥐팥쥐이야기 팟쥐는 저이어머니가 새옷을 이며 다리고 잔치구경을갓스나 콩쥐는 계모가 시킨대로 구멍난 물독에 물을기러다채야하고 한멍석이나 되는 베를 찌어야하는데 물은 두꺼비가 도아 얼는깃고 베는참새들이 와서 다 까고 까불러까지 주어엇다. 그러나 잔치집에 입고갈 옷이 업서 우는데 하눌에서 검은 암소 한마리가 나려와서 비단옷과 비단신뿐 아니라 타고갈 가마까지 나어주엇다. 이야기가거기 이를때 내가 콩쥐인듯손벽을 치게기뻐던것 그 암소가 고맙던것 지금도 잇처지지 안는것이다. 더구나 내가 孤兒가 되여버렷슬때 남이 다 새옷을 입는 名節날이면 남몰래 하눌을 우러러 나에게도 그런 암소가 나려와 주엇스면 하던것은 나의 외롭던 少年때의 秘密이기도 햇다.

科學

一酸化炭素에 對하야 (一)

그中毒과救急策의小考

理學士 金 鍾 漢

米國 아이오와(Iowa)洲立大學 生理化學部에서 研究發表中에 하나이든 一酸化炭素 毒깨쓰에對한 小考를 發表하게되면 이글쓰는사람의 目的은 近者 新聞紙上에 報道되는 칼슘분와차이드에 中毒되여 만흔 사람의 生命이 犧牲되는것을 자조읽게된 理由로 此小考의 發表에 依하여 이毒깨쓰中毒防止에 多少 도움이될가하여 이글을 쓴다.

米國에는 自動車使用이 多大한 理由로 自動車에서 排出되는 깨쓰(Exhaust-gas)中에 잇는 一酸化炭素中毒으로 사람의 生命을 일허버리는例가 多數이다. 朝鮮內에서 發生되는 此毒깨쓰의 被害는 石炭불피우는 不完全한溫突 暖爐等에서 새여나오는 煙氣로 因하여 急性中毒(Acute Poisoning)或은 慢性中毒(Chronic Poisoning)에 걸리여 苦生하는 例가普通이다.

깨쓰中毒되기쉬운 位置와境遇

東西洋文明의 進步됨을 따라 郊外에發生되는 一酸化炭素中毒件數가 늘어가는現狀이다, 웨그러냐하면 깨쓰에 中毒되기쉬운 位置와境遇가 文明의進步의比例로 多大히 늘어가는 理由이다. 特히米國內에서 이毒깨쓰에 中毒되기쉬운 位置는 自動車, 石炭, 일루미네이팅깨쓰(Illuminating-gas)等을使用하는곳 또는 工場, 炭坑等內에서 常例로 中毒件數가 만히생긴다. 다시말하자면 農村보다都市에서 中毒件數가 만히생긴다, 米國中央政府衛生局에서 發行하는 一酸化炭素中毒事件統計表에依하면 自動車에서 排出하는 깨쓰中毒으로因하여死亡되는者의件數가 首位를占領하엿다는 發表가잇다, 常例로 깨쓰中毒發生處는 自動車庫(Garage)內이다 自動車에서 排出하는 깨쓰를 分析하여보면 約七퍼-센트(7%)의 一酸化炭素가 包含되엿다는 數字의 表示가잇다 萬若 自動車庫에 門을닷고 自動車 엔진(Engine)을 發動시키고 約五分間車庫內에서 사람이나 下等動物이 呼吸을하게되면 그사람自身이 毒깨쓰에 感應되는줄 모르는사이에 그사람은 人事不省에 이르게된다 그때에 他人이 이러한 郊外에發生하는 일을發見치못하는 境遇에는 그사람은 三十分以內에 絕命하고만다 或어떤境遇에는 米國가티 自動車만흔大都市繁華街 特히 十字街附近에서 걸어가는 通行人이 自動車에서 排出되는 깨쓰에 感觸되여 急性或은 慢性中毒에 걸리여 心臟病으로 苦痛하다가 死亡하는 例가或時잇다 米國大都市 쉬카고나 뉴욕繁華街交通整理警官의 血液을 分析하여보면 約 0~38%에 一酸化炭素가血液中에 包含되엿다는것이 常例라고 米國政府衛生局에서 發表하엿다 모-터보-트(Motor boat)과 飛行機等에서 排出하는 깨쓰中에도 多量의 一酸化炭素가包含되엿다고 發表하엿다.

感情과消化機能

그미치는影響과相互關係 ⑤

金 鳴 善

以上에말한바와가티 근심과 걱정이 消化作用에만 惡影響을 與할뿐아니라 消化管에 어떤疾病에 罹患도되는것은 臨床上으로 잘아는바이다 例하야 말하자면 一九二九年 米國에 高度의 不景氣가 始作된後에 胃潰瘍에 死亡率이 前에 比하야 統計上으로 25%가 增加하엿슴과 갓다. 이胃潰瘍이란 胃에 어떠한 生理的變化가 잇게되므로 原因되는 病으로서 此病亦 藥으로만 全治키 不能한것이다 即 醫師의 指示대로 攝生하고 服藥하므로서야 奏効를 어든것이다.

以上에 말한대로 消化를 잘되게하라면 근심걱정을 내여던지고 平和로운 마음으로 食事함을 要하나 複雜多忙한 時代에 生活하는 現代人 特히 朝鮮사람으로서 容易한 일이 아니다. 박게 나아가면 社會에 부대끼고 집안에 드러오면 生活에 쪼들리여 沃飯良膳을 먹어도 消化가 될지말지한데다가 쌀밥 아니 胡米밥에 김치, 깍두기이 먹는다면 生存競爭이 甚한 近代에 生을 엇기실로어려운일이다 그러나 人間의業이란 生活의 餘裕로만 되는것이아니고 조흔飮食이야만消化가 잘되는것은 아니다 先人의말에 「보슥이밥을먹으며 물을마시고팔을 꾸부려벼게하야누어도樂이 그가운데잇다」함을보면人間의業이란 物質을超越한것이라 할수잇다 또는 「나물을먹으며 서로사랑하는것이 살진소를먹으며서로미워하는것보다 나흐니라」한 「솔로몬」의 警句는 科學的見地로도價値잇는것이다 그런이라 우리가부르는 常歌에도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베고 누엇스니 丈夫의살림사리 이만하면그만이다」라한도 意味잇게 生覺할수잇는것이다 이제우리의環境은 근심과 걱정에 차허用身키도 어려웁게 생각되기쉬우나우리의偉大한 所望잇는것을기뻐하야 惡飯粗饌이라도 맛잇게먹어서 잘消化케하야 우리의健康을 增進케하자 健康한精神은健康한 身體에잇다 꿋

學生作品

=研究論文=

『하나』에의憧憬 (三)

中東 鄭 琁

우리는 우에서『多』그것에『하나』가 나타남을 보앗고 現象의 如何한 一部分에잇서서도 그『하나』를 窺知할수잇슴을 배웟다. 그러나『하나』는 決코 多의一部分이 아님을 닛지말라. 우리는 우리아페 여러現象이 가로노혀잇슴을 보는 눈으로 여기에 現象과 떠부러잇는『하나』되는 實在를 차저낸다. 現象은 어김업시 恒常 그와 때를 가티하고 곳을 한가지로하는『하나』그는 이『多』가 저가튼 푸른물속으로 다라날때 벌서 거기에 자리잡고잇슴을 우리는본다.『여럿』은 어듸까지든지 그自身『여럿』인限『하나』를 永久히 여이지못할것을 암며 槪念은 具體를 여이고잇는것이아니고 또한 具體는『하나』로서의 槪念自身을 떠나서 잇슬수업슴과가티『多』그것에『하나』自身의 具現을 確認하는것 以上『하나』는 반드시 그『여럿』과떠부러『여럿』이 되지안허서는안되고 옥이는일의 그릇됨을안다

그런데 이『하나』가 무어인지 지금껏 똑바로 차저가지못한후리로서 漸進히도 그에게 탐탁지안흔 뭇의뭇 일흠을 떼여때긴이들이 어제 오늘에 한둘이 아님을 보나니 萬若 그들에게 잇서서와가티 그이른바『하나』란것이 物으로 無, 道, 神, 物質 精神 또는 無限等으로 限定할수잇는것이라면 이는 벌서 참된『하나』가 되기를 일어버림을 어이하며 一神論이 하나의 神으로 限定되고 一元論이 한개의 元體로만 理解될때 이는 곳 一種의 多神論이나 卜元論으로 떠려짐을 어떠케 하리요. 왜그러는것일가. 그하나란 實만흔의 一部分으로서의 하나에 不過한 어떤意味의 여럿이되고마는 때문에. 1 그이른바『하나』를『여럿』個中의 한개로 看取함에 우리는 엄청난 誤謬에 떠피고마는것이다.『하나』의根本性格은 唯一性에서 찻는것이 아니며 아니되다. 唯一과 單一을 混同하는이가잇다.『하나』는 決코 多의 總和가되어서는 안된다.『하나』는 만흔의根本原理가 되는限에서『하나』는 自身을 一部에 限定하는일이 업스며 또한 多와더부러 얼싸안고 잇스면서도 그는 恒常 그의 全一性을 일치안는다. 여기서 暫時 우리는 神의 存在를 밋고 神은 나만을 爲하야 잇다고볼때 나의 神에 對한 侮蔑인죽 이 가지로한 異名同姓의 存在라면『多』와 때와곳을한가지로한『하나』는『多』의 어느部面에 잇는것일가.

우리는『여럿』이 잇는가운데『하나』가잇는것이 아닌것과 그런다고『하나』가운데『여럿』이잇는것도 아님을 알앗다.『하나』는 自身인限에서『여럿』의背後에 잇지도아니하며 그러타고 前, 左, 右, 上, 下에 숨어잇는것도아님을안다.『하나』가 宇宙의絕對的인 實在라한다고 못存在를 超越하야 俯瞰하는 太陽이나 달과가튼것으로 信仰해서는 안된다. 이는곳우리는 存在者이니아니다든 무어이라고보는 것을 버리는데서만 하나의 참스런 얼굴을 어더볼수잇슴을 잇는때문이다. 가장 狎近한『하나』와『여럿』사이를 離間부친『칸트』는 現象뒤에 고이고이 감처둔物自體를 陰沈한 그자리로부터 빼아서다가『여럿』이 노는光明한고장에안치라. 우리가『여럿』을 보는同時에 아울러『하나』까지 찻처내는이 어김업는 事實을 누가 否定하려는가.『여럿』은 눈으로록하나『하나』는 생각하는일로 봄을아는 우리는 지난날과가티 이생각의일함을 忘却하는者가 되지안흘것을 기뻐한다. 눈, 코, 귀, 입, 몸等五官이 우리에게 具體以外에『여럿』들을 統合하야『하나』로가준 頭腦라는것이 잇슴을 또다시 否定못하는 우리로서는 이『여럿』을 單純히『여럿』그대로만 보지안코『하나』로서 보아가는外에『여럿』을그대로『여럿』으로보기도하며 또한『여럿』으로 보이는 거기서『하나』를 組織히 차저 낼을 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이 人間思惟의 一大革命이 됨을 저욱히 기뻐한다. 압서『칸트』가 人間이 思惟力을 그릇 限定하야 眞理를 不可知로 封해버린것은 오로지 人間의 思惟力을 이저먹은 所致임을 보앗다. 우리가『여럿』으로 하나를 생각하는것—『하나』로 봄다는것은 決코 그 본는바『여럿』되는存在의 限定性을 否定하는일이 되지안흠을 밝혀가즈며 나아가우리는『여럿』이 제대로 놓인 그자리에서—그려나無限히하나로 맨들기爲하야 그것들을 붙들거나 끌어다니는일이업시, 하나와 잇슴을 찾는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것일가『여럿』이 잇다함은 決코 아무러케나되는대로 잇슴을 가르치는것이아니고 어디까지든지 한개 한개됨 存在者로서의 不可缺한性格을 具存한것을 이름으로 決코 만흔가운데잇서서 어떤한개를 다른한개로부터 區別지을수업슴 即 이도 아니요 저도아니라는데서『하나』가 된다함은 아닌것이다. 참된『하나』는 오직 참된『여럿』에만 간우리고잇는때문에. 그대와 내가 여기에 잇슴은 반듯이 그대는 그대대로잇고 나는 나대로 잇는限에서만 비로소 주어짐을아나니 萬若그대가 그대대로잇지안코 내가 내대로 잇지안는다면 그대는 그대될수업고 나는 나될수 업는限 그대와 나는 처음부터 여기에 잇서지지 안흘것을 안다.

▲元山時論 一月號 元山府廣石洞一二三 元山時論社 定價二十錢

▲朝鮮實業俱樂部 新年特輯號 發行所 京城太平通二丁目二五 朝鮮實業俱樂部社 振替京城八五四〇番 定價五十錢 送料四錢

◇活泉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三丁目三五 東洋宣教會聖潔教會出版部 振替京城二五五〇番 定價十錢

▲黃海時報 第三號(月刊)發行所 黃海道海州邑 朝鮮社會事業協會黃海道支部 定價十錢·送料一錢

▲基督教報 第九十二號(週刊)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八九 基督教報社 振替京城二一五九〇番

▲青年太陽 一月號 發行所 東京市赤坂區表町三丁目二四 日本青年文化協會 振替東京六三三六八番 定價十錢

▲京城醫專有隣 第一〇八號(月刊)發行所 京城醫專有隣會 振替京城二一一番 定價一部五錢

▲旅客과交通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初音町二〇〇 鮮滿旅文支社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會報 一月號 發行所 新京朝日通日本總領事館構內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 振替奉天一六二六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今春各學校入學規定 ⑩

(但詳細는直接問議하시오)

京城齒學專門學校附屬醫院(女子)
▲募集人員 約十五名
▲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二月二十八日
▲試驗日字 自三月八日至三月九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京城保育學校
▲募集人員 約六十名
▲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三月二十一日
▲試驗日字 自四月一日至四月二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貞信女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三月十二日
▲試驗日字 自三月十六日至三月十八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向上女子實業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三月二十三日
▲試驗日字 自三月二十五日至三月二十七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光州公立農業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申請期日 自二月五日至三月十五日
▲試驗日字 自三月十一日至三月十四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中東學校
▲募集人員 本科約百名 豫備科約二百名
▲申請期日 本科三月二十一日까지 豫備科三月二十一日까지
▲試驗日字 本科自三月二十六日至三月二十九日 豫備科自四月一日至四月二日
▲試驗場所 兩科同校
▲試驗科目 兩科 國語 算術

徽新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申請期日 三月二十六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二十七日至三月三十一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協成實業學校
▲募集人員 商科五十名 工科二十五名
▲申請期日 三月二十六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二十七日至三月三十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中央基督教青年會學校
▲募集人員 中學科二百十名 工藝科百名
▲申請期日 三月三十一日까지
▲試驗日字 自四月一日至四月二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大東商業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申請期日 三月十二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十六日至三月二十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松都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百五十名
▲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三月十五日
▲試驗日字 自三月二十二日至三月二十六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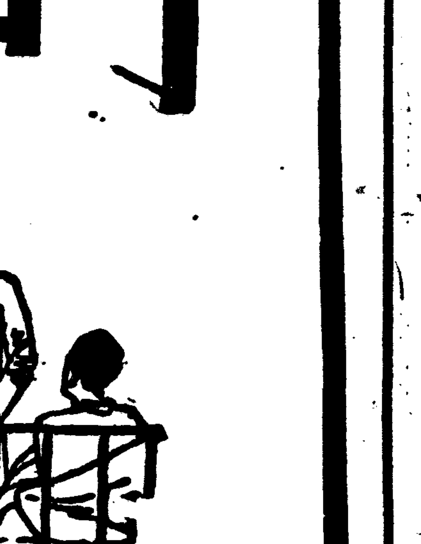
漢城商業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申請期日 自二月廿五日至三月十五日
▲試驗日字 自二月廿五日至三月廿六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中央保育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申請期日 三月三十日까지
▲試驗日字 三月卅一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代數 地歷 博物 理科

呼吸器를 튼튼히하는 ハリバ

하 리 바

조선은 기후관계로 특히 호흡기病이만흡니다 하나의豫防은 百의治療와갓다는말과갓치 結核에걸닌뒤에 藥이다 주사다 入院이다하고 허둥지둥마시고 미전에걸니지안토록 예방하여주시사 늘呼吸器를 튼々히하시는것이긴요합니다



집안사람이나 혹은 근처사람이 病에걸닌줄을아신때에는 반듯이 건강하실時에충분히 비다민AD를補給하여주시사 예방을하여주십시요

폐病에걸니는것은 몸에비다민AD가 부족되야 病에대한抵抗力이 업서지게된싸닭이니 무엇보다도 비다민AD의진국인「하리바」를연복하시면 病치료가될뿐만아니라 몸전신을 근본적으로또더곳처주는 몸보양제입니다

體內에 비다민AD의蓄積量이부족케되면 호흡기粘膜의健全分泌液(홀몬)이減退되야
一、치위에抵抗力이업서감기에걸니기쉬웁고
二、結核菌이 전염되기쉬웁고 허약해지며 폐병에걸닌분은 병이오래끌며 매우중하게되나니 이런째에「하리바」를連服하시면 병세를 속히回復식혀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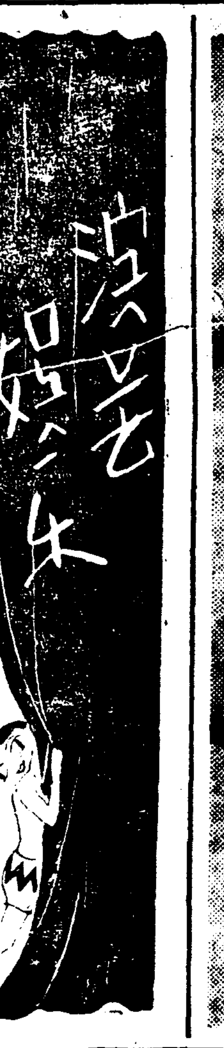
하리바는 적은진주만한糖衣小粒임으로 먹기에편하고 한알(一粒)은 보통肝油의四瓦파갓흔力價를가지고잇스니 小兒는一日一二粒 大人은四粒으로充分한효과를엇게됨니다

百粒…二圓五十錢
五百粒…十圓五十錢
全道藥房에잇슴니다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 株式會社 田邊元三郞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三丁目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HV-E-1

〝結婚선물〟—리차ー드·워ー레스監督 콘스탄스·베네트、캐리ー·그랜트共演 파라마운트社作品



佛蘭西映畵賞 〝靜寂의叫聲〟에授與

佛蘭西映畵의 昨年度傑作에 授與될 映畵大賞의 撰定投票는 지난 十二月二十二日 佛蘭西文部省에서 行하얏는데 아베ー르·간스의 『베ー토벤의 偉大한 戀愛』와 보와리에의 『靜寂의 부르는소리』의 두大作이 最高點을 다투고 잇다가 『靜寂의 부르는소리』가 首位를 點하야 受賞하게되엿다

兒童映畵專門의 寶島撮影開始

蘇聯에서는 兒童映畵만을 專門으로 製作하는 撮映所를 創設하얏다 그名稱은 『소유즈데드필무』로서 最初의 事業으로 스티븐손의小說 『寶島』를 映畵化하기로 決定하얏다 撮影隊는 벌서 海洋撮影을 하기爲하야 크리미아地方으로 出發하얏다 이映畵의 脚色監督은 베·와인시토크가하게되엿스며 配役은 人民俳優의 幹部級이 出演하게되여잇다(무ー비타임스)

銀幕夜話

빵마즌女子

『將軍은새벽에 죽엇다』를撮影할때 게ー리ー·쿠ー퍼가 相對役 마도레ー노·캬롤의 빵을 따리는場面이잇다 쿠ー퍼는紳士體面에 女子의빵을 함부로 따리기가 거북해서 힘것따리지못하고 우물주물하는것이 監督에게미움게보이엿다 빵을 마질 캬롤도어쩔줄모르고 주저하다가 구든決心과 覺悟를 한다음에 『어서 따리세요 사양말고 때려주세요 時間이느저지지안슴니까』하고 졸러대이므로 쿠ー퍼는 힘을다하야 빵을 갈겻다 때려달라고 조르던캬롤 생각보다는 정말지독스리때리므로 그만울어버리고 쿠ー퍼와 三日間이나말을 하지안헛다 女子란本來이런것이니……

늙으면 苦生

一代의 美男으로 世界女性의 사랑을 獨點하던 쫀·바라모어는 얼마전 도로레스·코스테로와 離婚하고 레느·바리ー와結婚하엿는데 새로어든 안해의父母ー丈人丈母가 날마다 놀러오기로되여잇다 그런데 안해가貴하면 妻家杜礎까지 귀엽다고中年이훨신넘어 어든 젊은안해라 丈人丈母의對接도 소홀히하지못한다 丈母라는이는 번화한거리를 조와하고 丈人은 조용한방안을 조와하므로 丈人을질겁게하라면 丈母가不滿하고 丈母를질겁게하면 丈人이조치안케생각한다 이통에끼여 쩔쩔매는 바ー리모어 나이가 만허지면 이런한苦生이 한두가지가아님을 새삼스리깨다랏든지 사람은 젊을때가 第一이다하고 歎息하엿다

라디오

四日(木曜)

◇午後六時 管絃楽 一、보헤미아의少女…앗샤ー編曲 二、라·팔로마…라이드編曲 三、시카고의鐘…스ー사作曲 四、뱃노래 [illegible]作曲 五、[illegible] DK管絃團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算術復習 安興奎
◇同七時三〇分 文藝講演 創作의態度(一) 李光洙
◇同八時 [illegible] 申鼎[illegible]
◇同八時三〇分 (東)獨唱 太田綾子
◇同八時五五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春香傳中 獄中相逢歌 李東伯 鼓手 韓成俊

第一放送

◇午〇時五分 (大)오페렛트
◇同六時 (東)歌物語
◇同六時二五分 (城)修養講話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同八時 (城)俚謠
◇同八時二五分 (釜)哥澤
◇同八時三〇分 (東)獨唱
◇同八時五五分 (東)浪花節

五日(金曜)

◇午後〇時五分 映畵이야기 朴澤銘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衣服과性格 李莫乙順
◇同六時 어린이科學 船舶과航海(一) 韓碧波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國語復習 市川榮三
◇同七時三〇分 文藝講演 創作의態度(二) 李光洙
◇同八時 (東)管絃楽 一、謝肉祭……드볼자ー크作曲 二、交響曲第五番……차이코우스키作曲 第二樂章 안단테칸타비레 三、『헨리ー八世』의舞踊組曲…자ー망作曲 가、모리스댄스 나、羊치는이의춤 다、횃불춤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坂谷[illegible]
◇同八時三五分 歌詞 一、길軍樂 二、處士歌 鄭英淳 金眞紅
◇同九時 報念外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흥타령 四、개고리타령 曹弄仙 曹弄玉 大笒 朴鍾基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城)만도링과푸[illegible]
◇同六時 (札)童話劇
◇同六時二五分 (城)副業講座
◇同七時三〇分 (津)講演
◇同八時 (東)管絃樂
◇同八時二五分 (東)民謠
◇同九時 (東)라듸오風景

六日(土曜)

◇午後〇時五分 (東)輕音樂 코로나、오케스트라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이철에맛는料理몇가지 尹德喜
◇同六時 하ー모니카獨奏 一、아르르의女子中〝화란돌〟 비제ー作曲 二、圓舞曲싼차고…코르빈作曲 三、喜歌劇『古城의鐘』에서…프랑켓作曲 四、루ー마니아의女王…이바노비취作曲 五、序曲『天國과地獄』…오펜바크作曲 崔鳳圭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算術復習 安興奎
◇同七時三〇分 週間時間 李元坤
◇同八時 流行歌 一、해뜨는언덕 二、酒幕의향고 三、물장수 四、맘天堂事情 五、映山紅 六、江南의哀想曲 七、悲歌 崔南鏞 伴奏DK管絃團
◇同八時三〇分 古談 〝떨어진달〟 金濃雲
◇同九時 제비가外 一、제비가 二、방아타령 三、사발가 四、도라지타령 五、늴리리야 六、노래가락 洪笑月 細笛 金昌植 奚琴 申忠根

第一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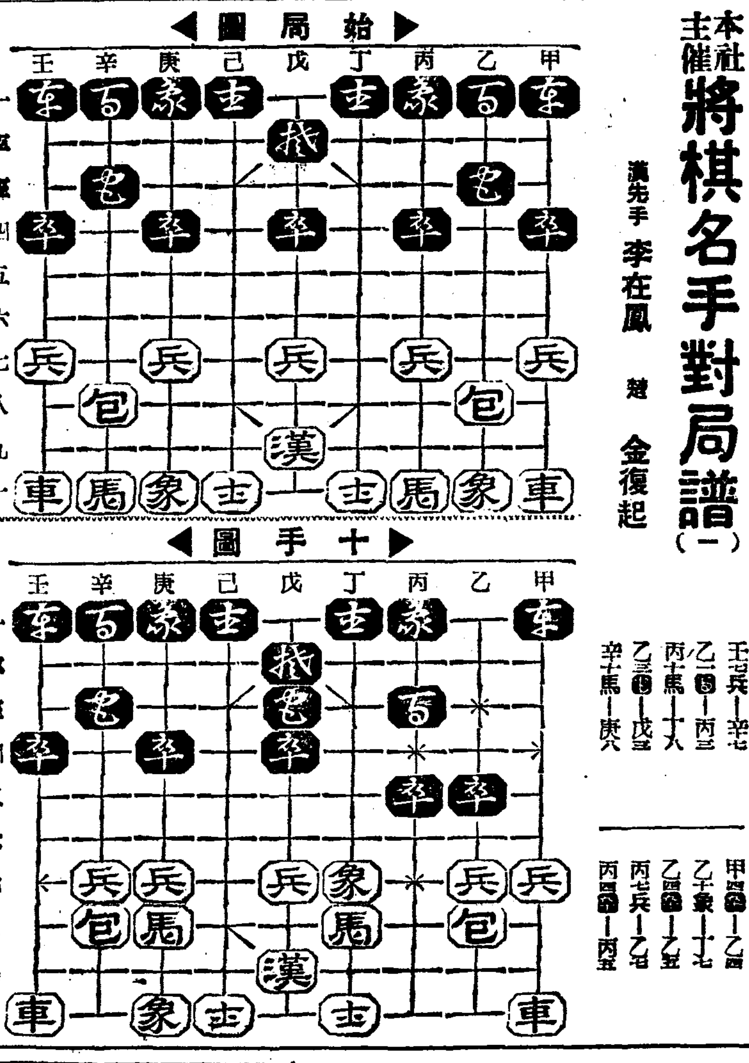
◇午後〇時五分(東)輕音樂
◇同 六時(城)童話
◇同 六時二五分(東)講演
◇同七時三〇分(國)俚謠
◇同七時四〇分(東)피아노
◇同八時(東)漫談
◇同八時二〇分(東)레뷰
◇同九時 時事解說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一)

漢先手 李在鳳 楚 金復起

始局圖

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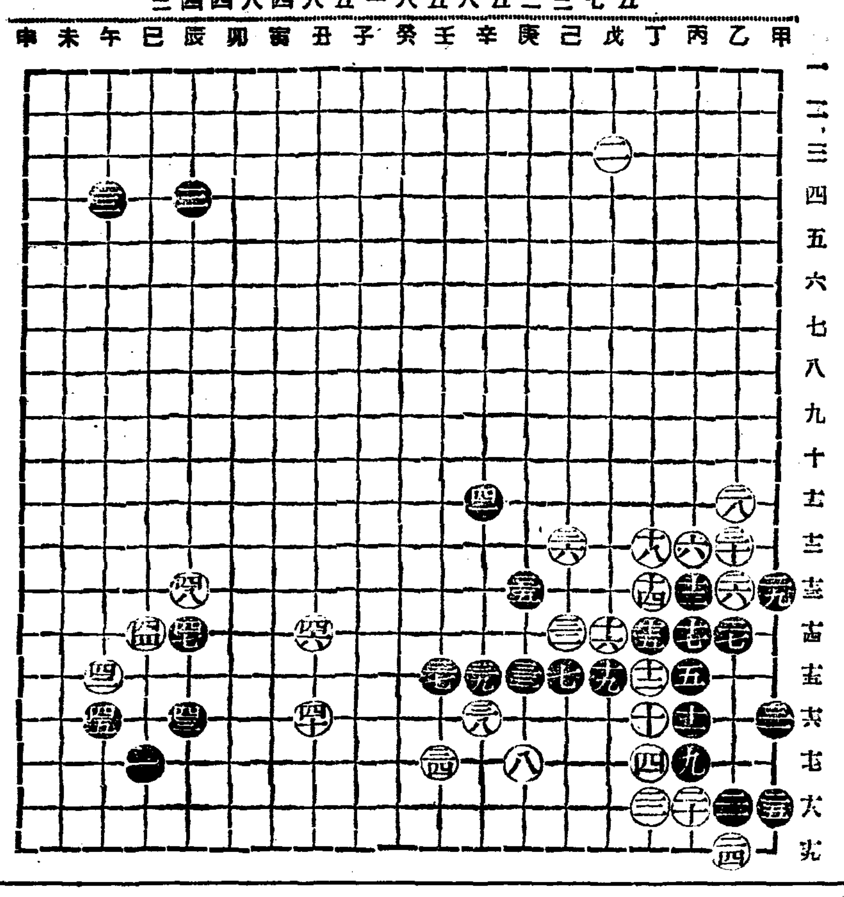


壬七兵ー辛七 乙三包ー丙三 丙十馬ー十八 乙三包ー戊三 辛十馬ー庚八

甲四卒ー乙四 乙十象ー丁七 乙四卒ー乙五 丙七兵ー乙七 丙四卒ー丙五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3―

白 蔡極文
黑先 丁奎春



三五 庚의十五 三六 壬의十七 三七 庚의十三 三八 己의十二 三九 壬의十五 四〇 辛의十六 四一 辛의十五 四二 丑의十六 四三 辛의十一 四四 午의十五 四五 辰의十六 四六 巳의十四 四七 午의十六 四八 丑의十四 四九 辰의十四 五〇 辰의十三

觀戰者談

白三二(巳一四)은 癸一六에 遠攻脅威가 展開中原의 濶步雄略이었다는談에 同感된다 黑三三(庚一五)은 捨借取廣之義로 癸一六에 驟然挾攻하면 白이 黑三三으로 黑一點을 捕虜하리니 黑은 巳一五에 廣占이 交易無損의 次第이다 白三八(辛一六)은 四〇에 先着이 得宜일가하노라 白四二(午一五)은 攻略取勢에 適切無二이다 白四四(巳一四)은 巳一一乃至午一二가 實利的通例이다 白四六(丑一四)은 午一〇으로 廣占領域이 時宜이었다는 對局談에 贊同하노라

崔承喜 渡歐告別舞踊會

二月二十、二十一兩日間(밤七時) 府民館大講堂에서

會費 二〇〇·一五〇·一〇〇

主催 崔承喜舞踊研究所
後援 朝鮮日報社

純國産

㊉のガム

㊉のチウインガム를 씹으면

口臭를업새고

齒牙의清掃作用을하며

咀嚼으로서 唾液의分秘를促하고

消化를도아씹을수록

齒齦을 단단하고 든든하게한다

Maruima kokusan gamu

朝鮮代理店 京城府本町三丁目 ウラシマヤ本店
北鮮代理店 咸興府大和町四丁目 京阪屋
咸興府本町二丁目 三光本店
製造發賣元 名古屋市中區北一色町 合名會社 伊藤製菓所

朝鮮日報 京販 電本(2)一五九七番

樺太廳官營 海狗腎 新品到着

老少를勿論하고 陽氣업서恨歎하시는분이여 貴下를爲하야補精腎氣强壯에 神奇神秘한 天惠的靈効를 가진樺太廳官營捕獲眞品海狗腎이到着하얏슴니다

求服을願하시는분은內容說明書請求하시면無料進呈함

明治四十四年日、英、米、露四個國의條約에基한全世界에唯一한元素! 堂々한實彈的眞品! 百發百中은이로두고하는말

發賣元 朝鮮釜山府草梁町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一、一八二番 振替釜山七九二二番

ホルモンで肌の若返る

大評判の若返り化粧水

クラブ乳液 구라부

구라부乳液의優秀한威力!

肌の若返りに

구라부乳液은 効力이强한綜合호루몬을 皮膚에서부터吸收되여 살결의榮養이되며 살결바탕에서부터 젊게만드는同時에 純植物性アルモンド에依하야 美肌作用을한다 그럼으로 잔주름을막고 血色이조와저얼골이나손을어여뿌게만든다

肌の清淨効果

구라부乳液을 脫脂綿에찍어 얼골과 목에 문지르면皮膚의深部에서부터 기름때와 黴菌들을清掃하고皮膚를保護하야 죽은깨、여드름、기미가생기지안케防止한다

獨特の收斂性

구라부乳液은 淸掃作用과同時에살결을緊縮식히는獨特한作用을하게하야 氣孔毛孔을緊縮하고 氣孔의粗大함을防止한다 同時에脂肪의分泌를調節하야 脂性이잇는살결을깨끗하고 어여뿌게한다

白粉下にヨイ

化粧前에는 반듯이 구라부乳液을쓰고 白粉의濃淡이업시 잘먹고 하로終日 밀리지안는다、또 煉白粉의 溶水에큰効果가잇서 氣分이 爽快하리만큼잘퍼저서어여뿐化粧을만든다

肌の强壯料に

구라부乳液은 皮膚의 强壯料로도 効果的이여서疲勞된皮膚와弱한 皮膚에元氣를주어 抵抗力을强하게하고、彈力이잇는生生한살결을만든다

구라부乳液 (五〇전 六〇전)

專賣特許 綜合호루몬·膵臟酵素配合

釜山鎭에 大運河構築

當當·長千米、幅三十七米로 十三年度부터 着工

偉觀

【釜山】부산진 매축지와 해안오륙부터 우서면(佑西面)일대를 공업지구(工業地區)로 정하고 고곳에 큰 운하(運河)를 구축하고저 부산부당국에서 계획중이든바 부산시가지계획실시가 결정되기를 기다려 소화십삼년도부터 착공하기로 내정을하엿다 그계획내용은 부산진 대선소주회사(大鮮醸酒會社)압 해안으로부터 동천(東川)에 병행하야 서면전차정류소부근까지 기리 약 일천미돌, 폭이 삼십칠미돌의 대운하를 구축하고 그량측 엇던에는 폭이 엿간가량되는 차도(車道)를 설치하야서 모든 차마의 통행을 편리케하는동시 운하에는 오십돈내외의 소증기기선(小蒸氣船) 부선(艀船)등의 운항을 용이케하야 각공장에서 사용하는 원료와 및 생산품의 운반을 편리케 하리라고한다 이운하가 완성된다면 공업도시로서의 약진에 일층 박차를 가하게 되리라고 일반부민은 만흔 기대를 가지고잇다고한다

第三次定平農組 廿日第一回公判

【咸興】오래동안미결로잇든 제삼차정평농민조합(第三次定平農組)사건 한무상(韓武相)등아홉명에 관한치유법위반 출판법위반의 공판은 오는이십일 함흥법원에서 소산(小山)판사의 담임과 정검사의 관여로 개정키로결정되얏다

叺檢査苛酷으로 利川農民들悲鳴

災害救濟에도影響이莫大타고 檢査의緩和를要望

【利川】리천군내작년중 벼,보리등의 이중흉작은 일반농가의 생활상치명상이엇다 그리하야군당국에서는 재해구제의 유일한 대책으로 가마(叺)짜는것을 적극장려하고잇슴으로 그생산량은 다소증가의경향을 보이고잇스나 그반면에 가마검사방법이 작년에비하야 훨신 혹심하여젓다고 생산자인 농민들은 비명을올리고잇다 그검사는 인천미곡검사소리천주재원(仁川米穀檢査所利川駐在員)들과 군농회촉탁검사원들이 하고잇스며 가마한짝값은(肥料叺)일등 십이전사리 이등 십일전사리 삼등칠전으로서 일등과 이등에 격차는 일전에불과하나 일등과 삼등과의 격차는거의 절반에 갓가움으로 검사방법에여하가 경제상 영향하는바 실로크다 이제작년일월과 금년일월에 출회되가마짝수와등급별을 조사한바에 의하면소화십일년일월중에는 이십오만이천삼백사십매(枚)가 출회되엿는데 그중에서 십일만삼천구백칠십이매가 일등이요 십만구천사백칠십삼매가 이등이며 이만팔천팔백구십오매가삼등으로 이상 산액이 이만팔천팔백오십팔원이엿고 소화십이년 즉금년일월중에는 이십칠만칠천사백팔십칠매가 출회되엇는데 그중에서 륙만이천팔백륙십삼매가 일등이요 십사만팔천칠백륙십칠매가 이등이고 륙만오천팔백오십칠매가 삼등으로이상 산액이 이만팔천칠백칠십팔원으로 전기한바와가티 금년일월은작년일월에비하야 생산고로 이만사천일백삼십팔매의 증가가 잇섯슴에 반하야 산액은 겨우 칠십칠원이증가되엿고 등급별로는 일등 오만이천일백구매가 격감되는반면에 이등 삼만이천삼백팔십사매와 삼등 사만사천팔백칠십일매가 각각 증가되엿다 이상에 수자만으로도 금년에 등급사정이 작년그것에 비하야가혹함을 엿볼수잇스며 거기다가 가마짜기에 숙련됨과 기술의 진보됨을 종합해본다면 더욱 혹독하다하여도 과언은 아닐것이라한다 이러한 현상으로서는 당국의 방침인 재해대책에도 영향이만타하여 일반농민들은 그 검사방법의 완화를 열망하고잇다한다

白晝山路에서 三人强盜出現

現金强奪逃走

【元山】구세말을 알두고 각지에서 강도사건이 빈발하야 인심을 소연케하는이즈음 안변군하에도 삼인강도사건이 발생하얏다 —지난 이일 오전열시경 강원도 통천읍(通川邑)에서 모피(毛皮)장사를하는 송석식(宋錫植)(?)씨가 안변군남산역(南山驛)으로부터 경원선도로의 산길을 것고잇슬지음 돌연 배후에서 삼인조강도단이 달여들며그에게서 소지금전부를 강탈하야 가지고 유유히 종적을감추엇다 이급보를접한 안변서에서는 방금 범인을엄탐중이며 그수배를 린접지 경찰에서하얏다。

郡廳門前에 拳銃彈丸積置

【城津】지난달삼십일오후다섯시경에 성진군청(城津郡廳)직원주공하(朱公夏)씨가 숙직실아페서 권총탄환포(彈丸包)삼십오개와 련총(聯銃)탄환포(彈丸包)이개를발견하얏는데근래드문괴사건이므로 성진경찰서사법계에서는진상을조사중이라한다

毛租專門窃盜逮捕

【淸州】청주군 남이면 척북리(南二面天北里)에원적을두고 일정한주소도업시 도라다니는 홍×술(洪×述)(二)이라는자는 지난이일밤중 청주읍석교정(石橋町)정미업김태건(金泰建)씨 방에 침입하야 모조세가마니를 절취하려다가 그이튼날 본정이정목 김치운(金致雲)씨정미소에서 정미하려 청주서원에게 체포되엇는대 이자는 백미절도으로각처에 다니면서 절취하엿다는바 여죄가상당히잇는모양으로 방금 엄중취조중이라고한다

平壤의第二"佐奈田"

豪放·金庫깨치고三百圓窃取後 그자리에서술나팔

【平壤】대담한 그리고 호걸스러운 괴도사건 한가지—평양부내 신양리(新陽里) 잡화상최운룡(崔雲龍)의집에는 일일오후열한시부터 삼십일일오전여덟시까지 사이에 노피여섯자나되는 대형금고가 산산히깨여지고 그속에잇든 현금삼백륙십칠원팔십일전이 도적마진것을 발견하고 평양서에 계출하자 평양서에서는 범인을 엄탐한동 가튼동리 전과오범 리은칠(李殷喆)(三七)을검거햇다 이자는 현대평양의"짜빨잔"이라고도할수잇서 작년十월중옥한후 부내를 배회하다가 이날밤에도 소주한되를사가지고 이상점에 침입하여 한손에는 마치를 드리금고를 파괴하고 또 한손으로는 소주병나팔을 불며서 금고파괴의목적을달햇고。

改嫁寡婦의야튼꾀

改嫁한걸洞里靑年이놀린다고 謀避코저"强盜마젓소"

【3】……고독한 과부의 몸으로 동리 청년들의 놀림을 피하기위한 생각으로 허위 강도고발을하야 갓득이나 구년말경계를하든 경관을 놀라게한 이야기—선천군산면 하단동(山面下端洞)정씨(鄭氏)(四二)는 삼년전남편과 사별하고 공규를 지켜오다가 이천원가량의 소유재산이 잇는것을 탐내인 동리 모(某)의 꾀임에 그만 빠져결국 자식까지 낫코살든바 이를 안동리 청년들은 매일가티 와서 가진행패와 조롱을하므로 이것을 견디다못한 전기정씨는 강도를마젓다고 고발을해서 경관이 오면 이욕을 면하리라는좁은마음으로 지난 이십구일 오전령시경에 강도가 침입하야오원을 빼아서갓다고 고발하엿스므로 곳 활동을개시하엿스나 그여자의 행동에 불심한 점이엇서 취조한결과 전기 사실이드러나게되엿다그래서문초하든경관도 동정을해서훈계방면햇다한다

"物價高"를利用 奸商輩跋扈

咸興署嚴重團束

【咸興】함흥서에서는 최근부내각처에 발호하고 잇는 부정상인들의 취체를 엄중히하는동시발견되는족족 엄벌에 처할방침이라고 한다

이부정상인들은 최근모든물가가 폭등하는 것을 리용하야여러가지 간계(奸計)를쓰가면서 폭리를 취하고잇슬뿐아니라 거기다가 부정형기(衡器)를사용하야 우민농군을속히는페가 극히만허 그피해가 적지안타고한다

郡北布敎室奉佛式

【咸安】오래동안 별러오든 경남군북 포교당은 조경재 림무수(趙敬齋,林茂樹)량씨의 열성으로 퇴창파벽이든 전군북면사무소를 수리하야 지난이월일일에 법우사 옥천사 룸세암(法雨寺玉泉寺等)간부의 래참과 관민수백명의 참석으로 봉입오후한시에봉불식을거행하엿다한다

苹果의都南浦에 園藝試驗場을

【鎭南浦】평과의왕도 진남포에는 평과재배에대하야 기술원으로 지도장려할한기관이업슴으로 과수업자들은 진남포에원예시험장(園藝試驗場)을 설치할계획으로 기성회(期成會)를조직한후 평남도당국과 교섭중이든니 금번도에는 기성회에서 대대면어호리(大代面於湖里)에 시가일만이천여원의 토지일만칠천여평을 매수하여 평남도에기부하기로되엿슴으로 도당국에서도 금번도예산에는 계상하여 금년가을까지에는 완성될것이라는바 총공사비가 기지를제한외 사만칠천여원을요한다고 한다이것이실현되면 진남포평과 생산량도 증가될것임으로 수천과수업자들은 크나큰기대를갓고잇다고한다

長城郡下에서 覆面强盜出現

【長城】전남장성군진원면상림리(全南長城郡珍原面上林里)도로변 최대자(崔大者)(二二)의 가가집에는 지난이일오후열두시쯤되여 무엇을 사려온것가려 문을열라하야 문을열어주엇드니 돌연수건으로 얼굴을 가린삼인조강도가 달려들어 당장에주인을 위협하고 돈을내여노흐라고 호령을하엿스나 마침현금은 잇는것이업서서 아모말을못하고 잇섯는데 그들은 달려들어 꿈작하면 죽일터이니 점방에잇는물건을 가저가겟다고하고 소주와 편포과자등을시가 삼원칠십전어치를 가지고 유유히 어두운밤을 다서 다라나 버리엿다는바 이소식을 들은 동면 주재소에서는 현장을검사하고 급보를 접한 장성경찰서에서는 사법주임이 현장에출장하야 비상선을 느리고 수사에착수하얏스나 범인은 상일오후시까지는 아직도오리무중에 잇다고한다

"우리들의勤務도 八時間制로하라"

平鐵乘務員의要望

【平壤】철도국운전계(運轉係)의 종업원이 팔시간로동제로 변해지게되엿슴에 대하여 평철관내(平鐵管內)승무원들도 우리도마찬가지이니 일일삼교대의은택을 밧고저 최근어떠한형식으로든 당국에요망하기로되엿다한다

農林校位置爭奪 甲、惠兩郡民對峙

兩方모다道에陳情

【咸興】함남고지대 삼수(三水) 갑산(甲山) 풍산(豐山)의 삼군련합기성회에서 필사적으로 민간부담금 륙만원을모집하야 금춘에는 개교를 보게될터이라는 갑산농림학교(農林學校)를싸고서 이번에는 그위치운동으로서 혜산(惠山) 갑산(甲山)량지가 서로대립이 자못격화하고잇다 혜산측에서는 인구로보아서 국경의제일요충지인동시에 제반문화기관이 모다 집중하고잇스므로 반듯이 혜산읍에 설치하여야된다고 지난일월이십구일 시민대회를개최하고 진정위원세명을 도당국에보내기로하얏다고하며 일면 갑산(甲山)에서는 본래부터 농림보습학교가잇섯스니 새삼스러이 혜산(惠山)에 빼앗길수업다고 역시 일일에 시민대회를 개최하고서 진정서를 도당국에 제출하야왓다 이리하야 량지에서는 서로기세를 올리며 바야흐로 격렬한 쟁탈전을 거듭하고잇는데 그추이가 자못주목된다한다

서리마진慶南窮民

昨年一年間萬六千件을써넘어 "支拂命令" "沙汰등에"

【釜山】농촌과 도시를 물론하고 중산계급이하는 날로궁핍화하야가서 늘어가는것은 부채뿐인데 이부채를 지불할수업서 채권들에게 가지각색의 곤난을당하는자가 격증하고잇서 소화십일년도중에 부산지방법원과 각지청에서 처리한지불명령(支拂命令)이 일만륙천팔백사십사건이고 이중가집행(假執行)이 륙천사십사건, 가차압(假差押)일천팔백칠십구건이라한다 그리고그 내용을분류해보면 다음과 갓다한다

▲釜山地方法院取扱
支拂命令 四、八一七件
假執行 二、四九九件
假差押 六七三件

▲馬山支廳取扱
支拂命令 二、三三一件
假執行 一、一二六件
假差押 二八六件

▲密陽支廳取扱
支拂命令 一、四一三件
假執行 六二四件
假差押 一三三件

▲統營支廳取扱
支拂命令 二、九三〇件
假執行 一、五四五件
假差押 一五五件

▲晋州支廳取扱
支拂命令 二、九四三件
假執行 一、五六七件
假差押 四四四件

▲居昌支廳取扱
支拂命令 一、六一八件
假執行 七五八件
假差押 一七八件

오-ㄹ元山 "스키"大會 七日에開催

【元山】원산체육협회(元山體育協會)주최로 오는칠일 원산신풍리(新豐里)"스키-"장에서 원산"스키-"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엿는데 그경기종목은 다음과 갓다。

距離競走 午前九時半開始
飛躍臺열음 午前十時半開始

幼年組 一키로
少年一組 二키로
青年組 二키로
壯年組 二키로

滑降競技 午前十一時半
幼年組男女 少年一組 少年二組 青年組 壯年組 女子

連鎖競爭 午後零時半開始
回轉競技 午後一時開始 少年一組、少年二組、靑年組、壯年組
繼走 四키로

規定(各組區別年齡)
幼年組 十歲以下
少年一組 十四歲以下
少年二組 十八歲以下
靑年組 三十歲以下
壯年組 三十一歲以上

一、他地方으로부터의申込도可
二、申込場所 元山府廳內體育協會
三、締切期日 六日正午까지

스키―部

俄然大活動開始 淸州署刑事隊緊張

新義州、釜山方面向發

【淸州】청주서형사대는 지난일일 두대로나누어 일대는 부산(釜山)도한대는 신의주(新義州)방면으로 향발하얏는데 그내용은 극비에부침으로 알길이업스나 모중대사건에관련된 범인이 그방면에 잠복하여잇는듯하다하야 그와가티 맹활동을 개시하게된듯하다고한다

南朝鮮出漁團 成績매우良好

【鎭南浦】진남포어업조합(漁業組合)에서는 겨울동안진남포해안에서 고기잡이를하지못하게되는관계로 어업자들이 직업을일케되를 유감으로생각하야 작년남조선방면으로 출어단(出漁團)을 파견하여 그성적이매우량호하엿슴으로 금년도 역시어선십삼척을 남조선에 파견하엿는바 그업적이 매우량호하여 일월중의 어획고(漁獲高)는 최고록백원에달하엿다는바 방금 전남목포(木浦)해안에서 조기를 잡는중이라고 하며 금년은 기후가조흠으로 매우조흔성적을 보리라는김보가 왓슴으로 명년도에는 다수의 출어선(出漁船)을 파견하리라는바 진남포어업조합의 이회기적 사업은평안북도와 황해도에 잇는어업자들이 크게주목되는바라고한다

地方人事

▲羅喆河氏(永興産業組合理事)新任人事次本報永興支局來訪
▲尹鳳衡氏(東下面長)新任人事次本報楊市支局來訪
▲金鍾和氏(楊市水利組合理事)同上
▲一丸尙氏(前群山郵便局長)新義州轉任人事次群山支局來訪
▲金智光氏(本社沙里院支局長)二月二日沙里院自宅에서遭祖母喪
▲雨宮百治氏(警部補)報恩警察署轉任人事次本報淸谷支局來訪
▲田村再喜氏(警部補)淸谷警察署新任人事次 同上

本社讀者慰安 白頭山映畫大會

▲瑞山 二月五日夜六時
▲牙山 二月六日夜七時
◇主催 朝鮮日報社各支局

長篇小說 그의自敍傳 【45】

長白山人作 熊超畵

교원생활 (五)

나는 사변간 영양부족과 과로와 심려로 무척 몸이 약하게되엇다。내가 후변에 중병으로 오래 신고한 원인이 여기서 시작된것이엇다。월급이란 거의 한푼도 받아보지못하고 나무와 양식과 무 배추같은 반찬거리를 얻어먹을뿐이엇다。의복도 많이 아니엇다。한 지나가는 손님이 두루마기 한 감 모자 한개를 선물하는것을 받아서 썻다。양말은 구녁이 뚫어지고 메투리는 창이 낫다。그리고는 학교시간만을 한주일에 설흔시간, 그리고 야학잇고 동회잇고, 또 교회에서 때때로 설교까지하엿다。게다가 가정관계 기타로 내마음에는 번뇌가 늘엇다。잡아가둔 내려누른 청춘은 가끔 반란을 이르켯다。나는 때때로 누구도 아닌 사람을 그리워 하는 생각도 낫다。이것저것이 합해서나는반에잡안드는 병이 생기고 몸도말르고 기침까지도 낫다。의원들은 몸이 약해젓스니 쉬이고 복약하라고 권하엿으나 나는 쉬일 새도 없고 복약할 돈도없엇다。여름 방학까지도 나는 하기강습교사로 다녓다。나는 강습회 다녀오던길에 차중에서 졸도한 일도 잇엇다。나는 이렇게 피곤한 생활을 하다가 피가 말라서 죽는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잇엇다。그러나 내가 가르친 사람들과 내 동료들에게 배척을받음을 볼 때에 나는 환멸의 비애를 느끼지아니할수없엇다。

내가 만일 세례를 받앗다면 배척문제가 아니 일어낫을는지 모른다。그러나 나는 교인되지 칠팔년이 되도록 세례를 못 받앗다。그것은 세례문답에 번번이 낙제가 되기때문이엇다。아마 K장로가 나를 세례를 못받게하기위하야 목사에게 미리 귀속을 하는 모양이엇다。그러길래 평소에는 먼 교회에 잇어서 잇다금 순회로 오는 R목사가 내게 문답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마리아에게 잉태하신것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사 사흘만에 다시 살아난것을 믿으시오?」하는것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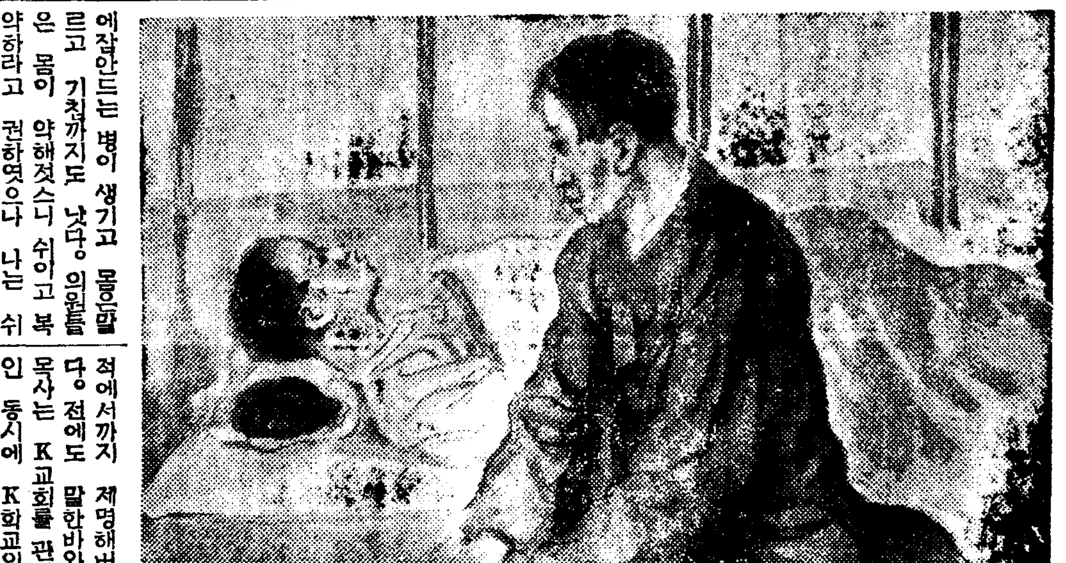
「구약성경도 하나님의 말슴인줄을 믿으시오?」하는것과

「이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죽은자들이 모두 무덤에서 일어나서 심판을받을것을 믿으시오?」

하는 세 가지를 꼭 물엇다。다른 사람에게는 이러한것을 아니물기도 한다는데 내게는 꼭 물엇다。여기 대해서는 내가 「네、믿소」하고 대답하지아니할줄을 R목사는 미리부터 아는 모양이엇다。다른 이들은 그것을 믿기에 믿는다고 대답하겟지마는 나는 그것을 못 믿으니까 믿는다고 대답할수가 없엇다。이래서 번번이 나는 세례문답에 낙제를 한것이엇다。나보다 나종 교인이·된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네 장로가 되네 하건마는 오직 나만은 만년 학습교인으로 잇엇다。

이것은 나종에 안 일이지마는 내가 W라는 고을에 하기강습소로 가 잇는동안에 O와 S목사들은 벌서 R목사에게 말해서 나를 학습교인의 적에서까지 제명해버렷다고 한다。전에도 말한바와 같이 R목사는 K교회를 관리하는 목사인 동시에 K학교의 교장이엇다。무론 한학기에 한번도 다녀갈까말까 하는목사요 교장이엇다。이리하야 우선 나를 교회에서 제명을 시켜놓고 학교에서 몰아내자는것이엇다。

이에 나는 분연이 K학교를 떠나기를 결심을 하엿다。개학이 되지 한달이나 지나도록 나는 학교사무를 보지아니하엿다。그러나 나는 오늘내일하면서도 참아 학교를 떠나지못하엿다。그것은 학교와학생들에게 정이 든 까닭이엇다 실상 나는사랑없는 가정생활을 하여가는 사랑의 주림을 학생들에게 대한 사랑으로 채웟다。인제는 K학교에 온지가 사년이나되니 학생은 전부 내 손에 길어난 아들까지는 안 되더라도 동생들과 갈앗다。밤낮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나는 내게잇는 정을 모두 학생들에게 솟아주엇다。나는 하루도 그들을 대하지아니하고는 살수없도록 그들이그리웟다。그들중에 앓는 이가잇으면 나는 내 정강이 허하는 한에서 지성으로 그들을 간호하엿다。어떤 때에 장질부사로 고통하는 학생을 껴안고 밤을 새우기도 하엿다。그들은 내 애인이엇다。그들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나는 모든것을 잃어버리는것 같아서 천지가 텅 비이는듯하엿다。



세상의 빛

세상이라면 물론 물질계와 정신계가 잇슬것이다 따라서 세상의 빛이라면 물질계의 빛과 정신계의 빛이 잇슬것이다 물질계의 빛으로 말하면 그 근원이 별도별이 어니와 우리에게 잇서서는 태양일것이다 태양이 업서진다면 태양계가 전부 망할것은 물론이오 땅우에잇는 모든 생물이 전멸되고 시와 주야가 업는 동시에 지구가 굴너저서 어느 지경으로 갈지 알수업슬것이다 그리고 정신계에 비추어 볼지라도 빛과 얼마나한 관계가 잇는지 알수잇다 그런즉 정신계에 빛치 업스면 생명이 업슬것이니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한바 만큼 정신계의 빛은 생명이다 이는 물질계에 빛치 업스면 생물이 죽은것과 가튼것이다 그리하야 육신은 아직 살앗스나 심령은 죽은것이어서 아모러한 심령적 활동이 업고 따라서 참이치를 분변치 못하야 그 가는 길은 헛되고 방향업시 출처도 모르는 동시에 목전만 보고 나가다가 어데서 끈어질지 모르는것이다 제 육신의 눈이 아모리 밝다할지라도 심령의 눈이 어두우면 …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 하엿스니 『예수』는 우리 심령의 빛치 되는것이다 …

整形 面·眼·鼻 / 여드름·죽은깨·사마귀 / 淋病科特設 / 皮膚泌尿科 / 淸華醫院 / 相談無料 / 鍾路二ノ七二

朴家粉·クリーム 박가분·크림 / 本舖 京城蓮池町 電話光化門 / 京城鍾路四丁目 / 株式會社 朴承稷商店

堅實本副業 / 紙袋自宅製造を奬めます / 大阪市天王寺區桃谷驛前 太陽社本店

當選謝禮 昌寧郡都泉面 協議員 河善浩

當選謝禮 昌寧郡都泉面 協議員 嚴鍾烈

恩給 最大長期分立替 取扱의迅速과信用은幣會의特色 詳細回答 京城府授恩町一六〇 鄭商會

備完室院入·療診般全科外 / 科外鎭晟金 醫學博士 / 京城府 電話光化門

中古各種機械賣買 / 京城府 電話光化門 五九四番

男女淋疾 蓼茸五淋錠

松都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第一學年生徒約百名 出願期日三月十五日迄 試驗期日三月二十二日より五日間 (開城府)

大東商業學校生徒募集 試驗期日 三月十六日より 京城府桂洞町 電話光三三七六

物療電醫責任養成 / 最新最效 物療電醫學全科를短期卒業 / 全國本院卒業自由開院安心 / ◎今回卒業後分院長이되는特典이잇슴 / 朝鮮高等電醫總本院 / 京城府 三ノ三四四 / 院長 內唯一

鐵道局電信科生徒募集 / 右鐵道局從業員以外ノ者ヨリ募集ス、志願者ハ朝鮮總督府鐵道局 / 締切三月十日、年齡大正七年四月二日以降大正十二年四月一日以前出生ノ者、學力高等小學校二年卒業又ハ同等以上程度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入院室完備) 京城鍾路三丁目十六 電話光化門六八五番

廣告 朝鮮 中和號 / 電話分局八二番

果樹苗木 豫約販賣 定價表進呈 / 興林農園本店 / 開城府南山町八一九 振替京城一五〇三七番

大奉仕的大投賣 急告 / 瑞西 整理品 / 特製 流行用 淑女用 / 日光時計部

光武劇場 / 朝鮮日報京城販賣

新富座

桃花劇場

一二月五日早日特別大興行 / 黎明에沙漠 / 人間奇路 / 北原城에서 / 매즌사랑 / 새해전날밤

經濟解說

結城財政經濟政策의 輪廓은大體이러하다

모로 이에 結城氏의 지금까지의 言動에 나타난 政策의 一端을 示하야 結城財政의 輪廓을 모러보기로 하자!。

財政政策

十二年度에 一層三十億四千萬圓의 膨大豫算을 編成하얏는바 이巨額의 豫算이 現下의 國際危機에 對處하기爲한 일을 알할것도업다 日本으로서는 積極的으로 戰爭을바라지는 안코나 國際關係가 …

稅制改革

財政의 基調를 健全財政에 置할것은 勿論이나 現下의 國際情勢로보아 不可能하다할지나 그準備工作을 一日도 疎忽히할수업다。그러므로 赤字公債의 發行 及 어느程度의 增稅는 不得已하나 그實行에 當하야서 …

産業政策

… 産業의 縮小는 當分不可能하고 産出의 增大는 軍需工業의 進을 促하야 延하야서는 全産業을 好調로 引導할것은 當 …

統制經濟

… 日本의 社會上 産業上에 重要한地位를 占하고잇는 中小企業의 健全化를 圖함이가장 重要하다。그리고 이統制 …

金融政策

… 公社債의 消化를 期하는 意味에서 低金利政策을 繼續할것은 勿論이다。또 金融으로서는 그本來의 使命을 다하도록 萬全을 期할이 …

大陸政策

… 日中經濟提携等 大陸政策의 實行은 日本으로서는 刻下의 大問題로 이를爲한 資金의 供給에 對하야서도 日本財界의 實狀에 照應하야 後急按配하야 萬全을 期하지안흐면안된다。또對中政策에對하야서도 此際本來의 善隣에 도라가 日本의 資本及技術과 中國의 豐富한資源과 勞力을 結聯시키어完全한 經濟提携에 依하야 東洋平和를確立할必要가잇다。

朝鮮對外貿易 輸出增加內容

各所向地別로본產品의進出相

全世界로顯著히開拓

農本主義로부터 農工併進政策으로 轉換한 朝鮮의 生産品의 海外進出은 顯著하야 昭和十一年의 輸出高는 七千五百二十六萬五千七百八十三圓으로 前年에 比하야 實로 一千三百二十六萬餘圓의 激增을 示하얏는데 이것을 各所向地別로 보면 滿洲는 七千百二十萬圓을 占하야 前年보다 七百八十六萬圓의 增加를 示하고 米洲는 百五十八萬圓 … 三萬圓식이 各前年보다 增加되엇스며 歐洲는 廿九萬二千圓으로 三萬五千圓을 濠洲는 八萬四千圓으로 二萬六千圓이 減少하얏는바 이것을 各國別로보면 南米보라질國이 一事로 五十三萬七千圓에 達한것을 筆頭로 … 하고 米國이 九十九萬三千圓으로 四十四萬六千圓의 激增을 示한것은 就安、水産罐詰을 示한것은 …

江界水力電氣 四月中에創立

鴨綠江 上流의 禿魯江水力을利用하야 發電할 江界水力發電計畫은 東拓及 森矗昶氏의 共同事業下에 着着計畫을 進하야 大體遞信局의 認可가 二月中에 잇슬모양임으로 四月中까지에는 資本金五千萬圓의 新會社를 設立하게되엇다 同社의 發電力은 全部二十萬키로로 新義州에서 右電力을 利用하야 電氣化學工業을 起하리라한다

朝鮮米特割輸送

鐵道省에서大宣傳中

鐵道省에서는 朝鮮鐵道局과 連繫하야 朝鮮米의 日本內地特割輸送制度에 關하야 一月二十一日부터 二月二十四日까지 下關을비롯하야 日本內地 主要都市에서 荷主懇談會를 開하는中인데 鐵道省의 朝鮮米特割輸送制度의趣旨大要는 如左하다한다

昭和十年度의 朝鮮米生産高는 二百二十七萬噸으로 其中百三十四萬噸을 日本內地에 移出하고잇는데 同年의 釜山港經由의 朝鮮米移出量은 二十五萬噸으로 總移出量의 二割에 當한다 昭和二年頃에는 一個年十萬噸을 連絡船에 依하야 輸送 하얏든것이 昭和十年에는 겨우 六千噸에 不過하고 鐵道運賃이 船運賃보다高한것을 示고잇다 一方下關으로부터 釜山에 輸送되는 總貨物은 十八萬二千噸 釜山으로부터 下關에의 輸送貨物은 四萬四千噸으로 四對一의 比를 示하야 如何히 日本內地와 朝鮮의 輸送이 不均衡인 片荷인것을알수잇다 이에鑑하야 鐵道省은 이片荷를 是正키爲하여 從來 朝鮮鐵道連絡船 省線의 三者로 分하야 計算하던 朝鮮米 運賃을今回는 一本計算으로서 産地에서 需要地에 一本輸送으로서 貨物運賃等級의 最下位二十級이던 米運賃을그

라이社는船會社에 重油不賣通告

總督府의 燃料國策을 基調로하는 本年度의 朝鮮의 石油販賣配定은 外油側에 不利하야 旣往實績보다 約三割이 削減되엇는데 이結果從來 朝鮮汽船會社에 重油供給을 一手로 引受하든라이징크산社에서는이에 對한供給이 不能케되어 各船會社에 對하야 同社는 四月一日부터 不賣를 通告하기에 至하야 船會社方面에大衝擊을 與하고 對策을考究中인데 外油에 代할 朝鮮石油의 製品은 配給不圓滑等의 理由로 이것을 使用치안흘方針이며 結局右事情을 總督府에 陳情하야 外油供給의 圓滑配給을要望하게될 모양이라한다

直送好成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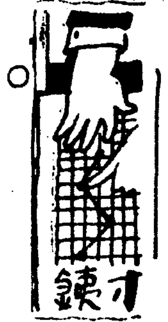
朝鮮米의 滿洲直輸送問題는各方面으로부터可否論이잇스나 昨年十二月末부터의 實施에依하야一月末까지에 鐵道가 輸送한數量은 慶北一千五百噸 … 五十噸 … 으로一個月間 利用方法이 周知되지안햇슴에不拘코 約二千噸에達하야 前年의連絡船總輸送量六千噸의 三割에達하고 着着集荷實績을 發揮코잇다한다 … 運賃에 比하야 決코高率이아니라는것이다

農家高利債 整理方針協議

總督府農林局에서는 金融組合의 更生指導農家에對한 高利債整理狀況에就하야 各道로부터의 報告를 모으고來三月二日부터三日間開催될 各道農林振興事務擔任者協議會에서그整理에關한具體的方針을 決定하리라한다

經濟界消息

○鮮滿拓殖第一期總會=鮮滿拓殖에서는 來二十五日 午前十時半부터 京城銀行集會所에서 第一回定時株主總會를 開催하고 創立以來 三個月에 亘한 第一期營業報告書及 損益差引五萬三千圓 配當金 四萬八千圓을 附議決定하리라고



(二月一日)▲京城府清進町三京城玩具店 金某鎬▲新開業 京城府林町八二中央時報社營業局長徐成洙▲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一〇八 森善次郎▲京城府南米倉町一三六 長野淸

○…木建築工事界에 또不祥事가잇다는所聞
○ 이미契約한것을 材料가暴騰되엇다고 工事를안할수업서하기는하되
○ 勞賃은 無理히 싸게주고工事도 不完全히하는 傾向이잇다고
○ 갓득이나 物價高로살수업는勞働者 품삭까지깍는다니 어이할고?
○ 二重의生活苦

結城藏相이되기까지

그가

結城豐太郎氏가 藏相候補로서 떠든것이 여러번이더니 이번에야말로 徹頭徹尾 藏相候補의第一人者로서 獨走하야『쿨·인』하얏다 前回 廣田內閣 組閣時에 馬場氏와 並稱되다 가 藏相椅子를 차지하지 못하고 拓相椅子차례가 왓스나 一蹴해버리어 世論을보이엇다。

其後 馬場氏는 非常時에 對舍(?)리어 財界에 이름하얏스므로 結城氏이 … 얼더면 그러치안엇슬것이라고 結城藏相待望의소리가 노팟섯다。

그리자 藏相財界의元老郷誠之助男이 第一線에서물너나고 後任으로 興銀總裁인結城氏가 商工會議所 會頭를 兼케되어 이에 名實共히 財界第一人者 藏相의第一候補者의資格

×

結城氏는 山形縣出生으로 先輩에는 池田成彬氏가잇고 後輩에는 小磯中將이잇다。相當한 秀才이엇同時에 어려서는 작난꾼이엇다。仙台二高時代에는『義太夫』에能하야 近邊을 놀내인 일이잇고 明治三十六年 京帝大를 卒業하엿는데 大學時代에冊校二高의 同盟休學을 指揮한 일이라든가 豪傑的生活을 보내스므로 成績은 그다지 조치 못하고 當時副總裁이든 高橋是淸翁에 懇願하야 겨우 日銀에 드러가게되엇다。

× 日銀時代의 結城氏는 元

〔寫眞〕 京帝大 出身 藏相

◇結城氏人物 才幹잇고豪放

氣잇게일하엿고 잘놀기도하엿다。結城氏는 小野美二郎氏가 紐育監督役으로잇슬때에 監督役付로 渡米하얏는데 奢侈、浪費로 그生活에 赤字를 내게되엿스므로 이를 補充하기 爲하야 출出張을하여 그旅費를 번일도 잇다。또 京都支店長時代는 大阪支店長 梶原仲治氏로부터 財閥로 改裝하기 爲하야 果敢히 그革新을 行하엿다。그리고 赤字나는것을 …

그런데 이一門과 累代의部下로부터 猛烈한 反對를바더 大革新의 大業을 … 로지못하고退出을當하엿다。그 戰後는 歐米를 一年餘 遊한뒤한동안 浪人生活을보내고잇든때에 昭和五年시 井上準之助氏로부터 懇望이잇서서 興銀總裁의 자리에안게되엇다。當時 井上藏相은 金解禁을 斷行하기爲하야『떼플레숀』政策을取하엿는데 그때문에 産業界는 金融難에빠저서 破産하는 …

配人의 推薦을 依賴하와슬때에 井上氏는躊躇업시 結城氏를 推薦하엿다。

×

大正十年 安田保善社의 專務理事로 安田銀行의 副頭取로된 結城氏는 善次郎이라는 巨人下에 無統制로 膨脹한安田王國을 近代的큰 財閥로 改裝하기 爲하야 果敢히 그革新을 行하엿다。

게되는 者가續出하엿다。興銀은 그特銀으로서의立場에서 그를 救濟하여야겟는데 鈴木島吉氏가 그를行하지안흐므로 結城氏를 總裁로한터이다。結城氏는 井上氏의知遇에 感激하야 大大的活動을 開始하야 積極的으로 所謂時局貸出을 行하야 事業會社의 破産을救하고 또井上떼플레政策의 破綻을 救하엿다。國策에順應한 이時局貸出도 銀行經營上으로볼때는 無理가잇섯스며 興銀은『플』의 大口取手로되야 興銀株는 拂込의半額以下로떠러저갓다。그後인플레低金利時代에 遭遇하야 危險을 무릅쓴 貸出이 無事히回收되고 結城氏의積極經營에 依하야 興銀은 巨利를엇게되엇다。同時에後年 銀行界出身이면서 도리혀産業界로부터 藏相候補의 懇請이잇서서 드되어 藏相으로 就任케된 착이 여기서 생긴것이엇다。

市川東銀專務 突然渡東

東一銀行 市川專務는 三日急遽渡東하엿는데 그渡東에對하야 傳하는바에 依하면 市川氏는 專務로서 그任에堪키어려워 辭意를가지고 東京가서加藤朝銀總裁林財務局長에게諒解를求키爲한것이라고한다 이에對하야 朝鮮銀行 橫瀨理事는 말하되

나는 갓는지안갓는지 모른다 市川氏가 總會後에와서 總會가無事完了되엇다는 報告만을 엇고 辭意는 듯지못햇다

郵便貯金 六千萬圓突破

朝鮮의 郵便貯金은 本年一月中에 急激히 現在高를 增加하야 六千萬圓을 突破하야 預人員三百八十七萬四千人 預入高六 …

株式 動機待로 軟保

前場不勢 米國株式은 又 …

今日의市勢〔四日〕

雜株一息狀態

過賣訂正人氣가된 電力株는續伸하야 東電이五十八圓臺를 보이고 宇治電이 一圓九十錢高인 四七、九 東邦이 五八圓丁 同新十五圓丁을보이는等 活氣를보이나 急騰場面을보인 重工業株는 石川造船新의 一圓低(九〇、三)를爲始하야 諸株가一齊一息商狀을보엿스며 鑛業株도 不變으 …

後場採合

後場은 東新○五十三圓二十錢 鐘新二百三十四圓二十錢 大新九十圓六十錢、日産八十六圓十錢으로 軟調裡에寄付하야 低價에서 採合하엿다

玉整理를續行

百四十七圓九十錢으로부터 一擧에拾圓치거 올른東新이 高價警戒와 利喰에 反弛商狀으로轉하야 百五十四圓臺를 보인後거의 膠着商勢裡에 保合을 繼續하야 百五十三圓臺에서 踏步하고잇는데 大勢를 上勢로 보는것이 一般의觀測인以上 此邊의保合은 玉整理의 中間揉合으로볼수잇는바 이中間揉合은 玉整理가 꼿나기까지는 分岐를보이지못할것이므로 아직얼마간의時日을 要할것이아닌가한다。그나마 中間揉合이 上分岐로 轉하기爲해서는 殺合去般의 低價를 下廻치는못한다하더라도 一段의低價를 보인後가아니면 아니될것이라는 商談도잇다。如何튼徐徐히 推移를 靜觀한後에 出馬하드라도 늣지안흘것이다。

國債 買氣旺盛 好勢

▲東京〔東京電話同盟〕新藏相의 公債政策期待人氣가 마층내 濃厚하야 當限落場面에도 不拘코 買氣繼旺盛하야 모다十錢乃至十五錢上廻하고 佛貨도 卅五錢上進하고 實物도 漸次貨物薄이되어 四分利도 五十錢高로 一株으로 良好하엿스며 特히 米貨는 稅制改革案修正을 期待코 相當한 低價로 買込되엇도 係도잇서 踏上이 續出하야 俄然 反撥氣勢로 轉하야 六分半 六圓十錢 五分半四圓四十錢 各各 暴騰하엿다

▲甲五分利 一〇〇、五〇▲一回四分 一〇一、五〇▲佛貨 一九七、二〇

▲大阪 ▲甲五分利 一〇〇、五五 ▲第三五分 一〇一、四〇▲一回四分 一〇一、九〇▲二回四分 一九七、二二 ▲佛貨 三七、五〇 ▲米貨六分半 一〇〇、二五

實物前場取引

○一八、六의 氣配이엇다。今朝에도 頑强하야 一三〇、二十一圓丁에 奔騰하고 팔푸工業도 一八、八까지 騰騰하엿는데 의氣配이며 東洋팔푸는 昨後場에 新株(一三〇、○)新株九十圓丁 로 라사工業이 買進되어 今朝等이 엇는데 다만 鐘紡等新은 …

▲大同産業 九〇 ▲大同電力新 六八 ▲人造毛 三四、○ ▲朝鮮製鐵 三九、○○▲日本紡織 …

今日財界四日

◆米 正租(仁川) 一等 … 京城 一等白米 … 仁川期米 先限 … 大阪期米 先限 …

◆株 朝新 … 東新 … 日産 … 大阪綿絲 … 大阪棉花 … 大阪人絹 … 大阪砂糖 …

買上成績注目

拂下엔無影響

今回政府米四十萬石拂下와 七十萬石買上으로 一般米界의注目을끌든바인데 拂下成績은申請者가三倍나되엿슴에도 結局拂下石數가 二十一萬石에 至하엿슴은 … 成績不良에近하나 그러나農林省의目標價는 그얼마나 高價인것을알수잇스며 申請者의多數에達하엿슴은 農家의賣惜으로 需給不安이不無한 所以로보지안흘수업다 그런데 市勢는 氣配가强하고도 實際의市勢는 他動的弱材로反落을 告함에至하야 拂下에는 何等의影響이업스나 그러나 아프로買上成績의 如何가또한注目거리이다 何如間買上만은 即强材인데 今後申請者가 多하게되는때는 그數量만큼 民間在米가 減少될것이며 萬一成績이不良하다하면 此는申請價格이그만큼 高價함을말함으로 買上成績의如何에依하야는 一段反撥을示할지도亦未知이라고云云

議會不安人氣

買警戒로反落

波瀾曲折을 거듭하든 政局은 林內閣의組織으로 비로소安定되엇스나 남은問題는 結城藏相의 豫算修正과 組閣後十日間延期한 議會의今後解散與否인데 結城藏相은 國民生活의 安定을圖하기爲하야 旣히 議會에上程되엇든 豫算의 相當히修正하려하는모양인즉 此는諸物價騰勢의 一轉을促하는 强材로보지안흘수업스며 議會解散與否에 잇서서도 境遇에依하야는 解散을 斷行하려하는 現內閣의意思임으로 議會의 不安人氣가 去益 濃厚하야 昨今의反落을告함에至한것이다 그러나 買方의期待하는바는 大豫算의多少修正을 見한다할지라도 軍費만은 到底히縮少키難할것으 …

大邱軟調

賣方이 모다買上에 關心을 集中하야 賣買는 不振이다 市況은 沈翔裡에 終 …

二〇、四〇 四一等三〇、七〇 一等白米 二二、九

釜山下游

市場賣物은 減千五百叺이 잇섯스나 移出엔採算이 맛지안흐므로 極力買回避하고 買上應募를 目標로 多少買騰하고잇는 側도잇서 定期低에 不拘코 氣配下游 人氣이엇다 三〇、四〇 四等三〇、七〇 一等白米 二二、九

仁川反落

巡田商頃 買上市勢로 一 … 橫様이오 正租는適價 實人氣이나 定期不勢와 日本內地不買로 買氣不添하야 氣配二十錢反落을 告하엿다 四等二九、九〇 一等白米 二二、〇 …

正米 賣買停頓 續落

京城不振

期米低와 賣行의至極不振으로 氣配二十錢으로 下하엿다 四等三〇、一〇 …

群山續落

日本內地賣行停頓狀態와 期米의 軟調를 보고 場面은 貨物薄이나 人氣弗弗하야 다시 十五錢續落을 하엿다。四等三〇、一〇 一等白米 二二、八〇

朝取期米取組內容

(單位百石)

… 此는一時的現象으로 現內閣의根本方針에잇서서는 統制强材로보지안흘수업다고 大體底勢는 一時的現象으로보지안흘수업다고 買派는主張한다

期米 商勢惡化 續崩

前場續落 昨後場阪地 三十圓十一圓二十錢止와共히 …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仁川期米 [illegible]

◆朝取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實株 [illegible]

◆短期土要株取組 [illegible]

市場短感

株…林內閣成立과 同時에 急騰을演한 軍需株도 너무急買進 되엇기때문에 今朝에는 鉅狀▲그러나 輕工業株 時代로부터 舞臺는 다시時局株에로 轉換되엇슴으로 第二段의 中間保合이 잇섯슬지라도 現內閣下에서는 軍需株가 買進될것은 當然한 일이므로 前途는 高價含으로볼밧게▲結城藏相은 物價騰貴의 根本은 豫算에잇다고 그根本에 觸하지안코는 안될것이라고言明▲結城氏여 豫算을縮減할 勇氣가 잇는가?

米…今回拂下石數는 三十一萬石에 達하엿스나 市勢는 何等의 影響이업다▲그러나今後買上에잇서서는 騰落間材料化할모양이니 此의成績如何가도다시注目꺼리▲그런데昨今의 反落은 議會解散을 憂慮하는關係이엇다▲그러나 米價의低落은 一時的現象으로 結局은 大勢의 昻騰은 無難▲그런데 低落程度는何에 止할모양인고買方은 持久戰이相當?

海外經濟 三日

[illegible]

銀行券 三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鱈油粕·麥粉

◆阪神鱈粕 [illegible] ◆阪神鱈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金銀價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本絹交織人絹

◆京城絹布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綿糸

◆大阪綿絲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生糸

◆橫濱生絲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

仁川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店

石金 分析 買賣 土金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一一〇番地 電話長本局②三三六番 振替京城一五一五四番

京城 仁川 米 株 [illegible]